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

사회과군 편

김다영
김병연
윤신원
황태성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
사회과군 편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 (사회과군 편)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1

ISBN 979-11-976907-4-7

PRN BE-IGCED-2021-032

발행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Tel) 02-774-3956 Fax) 02-774-3958

발행일 2021년 11월

기획·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집필 김다영 김병연 윤신원 황태성

디자인 디퍼런스디자인

이 책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는 어떤 국가, 영토, 도시 지역이나 해당 국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확정에 대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포함된 저자의 아이디어와 견해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사진 등은 모두 출처를 확인해 맨 마지막에 수록하였습니다. 만약 출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저작권 관련 정보를 주시면 확인 후 표기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

사회과군 편



서문

8

1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김병연 (서울 양재고등학교)

1.1. 자문자답(自問自答), 저를 소개합니다	12
1.2. 2021년, 수업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15
1.3.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갔어요	23
[사례 1] 불평등 현상과 사회정의	23
[사례 2] 사회정의 관점에서 세계화 바라보기	31
[사례 3]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 탐구	36
1.4. 수업을 되돌아보며	44

2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는 ‘세계시민’

윤신원 (서울 성남고등학교) · 황태성 (서울 상명고등학교)

2.1. 선생님은 왜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요?	48
2.2. ‘세계시민교육’, 어렵지 않아요!	53
[사례 1] 세계화와 먹거리 문제	53
[사례 2]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62
[사례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75
2.3.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우리 함께해요	82



3

지역이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세계시민교육

김다영 (경기 안산 성포고등학교)

3.1.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만났어요	86
3.2. 세계시민교육,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89
3.3. 세계시민교육과 연결성	92
[사례 1] 영상을 통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하기	93
[사례 2] 모둠 활동을 통한 나와 지역사회 연결하기	93
3.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	97
[사례 1]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	98
[사례 2] 인권 시 작성하고 낭송하기	100
3.5.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102
[사례 1] 영상을 통한 다문화교육	103
[사례 2] 포토스탠딩을 통한 다문화교육	104
3.6. 실천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108
[사례 1] 100원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108
[사례 2] SDGs 이해하고 실천하기	112
3.7. 글을 마치며	116

서문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는 그래도 낫지만, 입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꽤 많은 선생님들이 21세기를 살아갈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여겨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은 여전히 특정 교과목의 일부 선생님들이 하는 무언가 특별한 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아태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좀더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과정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일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어렵지만 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선생님들께 보여 드리자는 것입니다.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마치 찻집에 앉아 편하게 나누는 일상의 이야기처럼 실천 사례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수업의 비중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 문턱 낮추기 프로젝트는 교과수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정 교과목 한정하지 않고 여러 교과에서 교육과정에 따른 진도를 소화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 첫 편으로 사회과군을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는 일반사회, 지리, 도덕, 역사와 같은 사회과군 과목이 아닐까요? 그런데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모두 통합사회를 배우게 되어 있고, 통합사회는 말 그대로 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 등의 과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교과라고 하니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회과군에서 시작하지만, 순차적으로 국어, 영어, 역사,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른 교과목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회과군 편에는 통합사회, 도덕 선생님 각 한 분, 지리과 선생님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사회과군에 속하는 선생님들이 골고루 참여하시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도 저희의 의도에 맞게 좋은 글을 써 주신 김다영, 김병연, 윤신원, 황태성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장 김병연 선생님의 글은 통합사회 교과 중에서 선생님이 맡아 가르치신 <Ⅵ. 사회 정의와 불

평등〉, 〈Ⅷ. 세계화와 평화〉 등 2개 단원과 관련된 수업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2장 윤신원 선생님과 황태성 선생님의 글은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등 지리 교과에서 실천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3장에서 김다영 선생님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활동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를 들려줍니다.

네 분 선생님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이 정확하게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지역도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도 자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다함께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고력, 공감력과 더불어 행동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고 보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아태교육원은 작년 국내 세계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천 심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라는 책을 엮어 낸 데 이어 올해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해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제안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서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없던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이번 안내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내서가 세계시민교육의 모범이나 모델 사례를 제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고등학교 교과수업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한 몇몇 사례를 보여드리으로써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 이런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평소 세계시민교육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선생님들도 이 책을 많이 보시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살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없이 분주한 학기 중에 생생한 글을 써주신 네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를 맡아 수고한 아태교육원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이양숙 부소장과 이연경 선임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1년 11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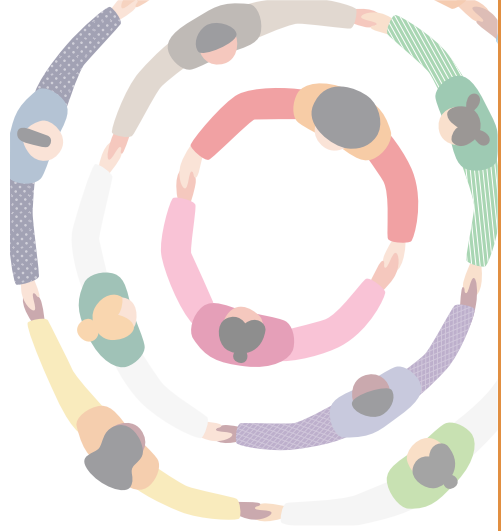
원장 임현묵

1.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김병연

(서울 양재고등학교)



- 1.1. 자문자답(自問自答), 저를 소개합니다
- 1.2. 2021년, 수업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 1.3.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갔어요
 - [사례 1] 불평등 현상과 사회정의
 - [사례 2] 사회정의 관점에서 세계화 바라보기
 - [사례 3]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 탐구
- 1.4. 수업을 되돌아보며

1.1. 자문자답(自問自答), 저를 소개합니다.

○ 선생님을 소개해주세요.

대학시절, 사범대학에서에서 공부할 때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어요. 교육연구 동아리였어요. 이름은 '들꽃은 스스로 자란다!', 동아리의 지향점이 살짝 드러나는 것 같지 않나요? 2년 정도 지역사회 공부방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담게 된 것 같아요.

그 후 교사가 되고 나서 통일교육을 고민하는 교사 모임, 교육청 연구회 등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평화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의 모임에도 참여했죠.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도덕, 윤리 과목을 가르치려면 어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싶어요. 하지만 기대만큼 부족한 수를 찾지는 못했어요. 남들은 직장생활 몇 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은 듯해요. 주변 선생님들을 봐도 경력이 쌓일수록 여전히 어려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이어져 대학원을 찾았고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고민이 더 깊어진 것은 맞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학생들이 자존감을 느끼도록 학교 생활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차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대를 통해 문제를 극복할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싶어

요. 하지만 여전히 먼 훗날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 선생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교육이 뭘까요? 저마다 '교육이란 ○○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가, 어떤 세계관·학생관을 지녔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겠다 싶어요. 저는 교육하는 이유를 학생 한명 한명이 배움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복잡하고 때론 험난하잖아요.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양한 만남에서 갈등과 폭력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기후 위기 같은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전인교육(全人教育)이란 말을 자주 접했던 기억이 나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기 위하여 인지적·정의적·심동적 영역의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했어요.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을 보면 전인교육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손발 따로인 학생을 기르고 있는 건 아닐까?' 늘 마음이 불편해요. 무엇보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배움의 의미를 알고 즐거워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해 슬플 때가 많아요.

세계시민교육을 다룬 이론서도 있고 멋진 세계시민의 이야기를 다룬 책도 많아요.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생각할수록 세계시민교육은 그냥 우리가 '교육'이라고 해 왔던 것을 좀더 충실하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만 잘살자'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서로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생각이 다를 땐 대화로 해결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위기가 닥치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생각의 폭을 어디까지, 어떻게 넓힐 것인가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더 멀리 떨

어진 나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일이 세계시민교육이 아닐까 생각해요. 눈앞의 문제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나와 이웃의 삶과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을 낫설게 여기는 선생님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마음 편히 이해하면 어떨까요? 다른 선생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 교사지만 제 수업의 일부를 보여드리기로 용기를 낸 이유이기도 해요.

○ 고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 가능한가요?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수업 진도 나갈 부담이 늘 있지만 짬을 내서 20~30분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해요. 그 시간이 행복해요.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갈등 가득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서글플 때도 있지만, 그 와중에 뛰어난 통찰력으로 자기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는 학생이 있어요. 함께 손뼉 쳐 주고 공감할 때 힘을 얻을 때도 많아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 능력주의(能力主義, meritocracy)란 말을 자주 듣게 돼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능력주의가 너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일의 복잡한 사정에 관심을 두지 않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어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교과서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는 학생도 있어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모든 학생이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 와중에 '타자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잔잔히 전해 주는 학생도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생들이 토의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심사숙고할 기회를 가질 때 생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믿어요. 세계시민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일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육목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설정하려 해요. 목표가 너무 높으면 마음이 급해지

기도 하고 스스로 낮간지러울 때가 많아서요.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해요. 학생의 눈높이에서 나눌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어떤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말문을 열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서로 배울 수 있잖아요.

교사마다 수업 방식은 매우 달라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주고 다른 학생의 이야기와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백지상태가 아니다!', '학교는 사회와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교과서 서술이 논리적이면서도 당위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으려 해요. 사회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 수업은 좀 느려요. 진도 나가기 급급한 선생님들의 특징이 있죠? 교사가 묻고 바로 자신이 답하기. 침묵의 시간도 의미가 있어요. 떠들던 학생들도 조용해지죠. 그러면 평소 조용하던 학생들이 쭈뼛쭈뼛 한 명씩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다가가 들으려 노력하면 다른 학생들도 잘 들어요. 의견을 더해 주는 학생에게는 마음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해 줘요. 그런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늘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때 학생들이 수업을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2. 2021년, 수업을 이렇게 설계했어요.

2021년에는 '통합사회'를 일반사회, 지리, 윤리 전공 교사가 각 1시간씩 학급별로 주당 3시간 수업하고 있어요. 저는 <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Ⅶ. 사회정의와 불평등>, <Ⅷ. 세계화와 평화> 단원을 맡았어요.

수업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Ⅶ.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에서 '다양한 불평등 현상'이라는 학습 주제를 다룰 시간이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요. 학기 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학기 수업 준비를 하는 저로서는 한 학습 주제를 사실상 한 시간에 끝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요.

'통합사회'는 내신성적을 9등급으로 나누어 성적처리를 해요. 학생들이 지필 평가에 관심이 높죠. 지필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학급별로 내용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늘 있어요. 들어가는 모든 반에서 교과서 내용을 일관성 있게 소개해 줘야 학생들이 안심하고 저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수업 준비에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학기 초에는 한 학기 동안 할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1학기에는 4시간, 2학기에는 3시간에 걸쳐 수업 안내와 준비에 시간을 할애했어요. 다들 하시듯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한 학기 수업과 평가계획을 안내하죠. 1학기에는 저를 소개하는 OX퀴즈를 준비해서 풀기도 했어요. 제 생각에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 서로의 믿음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꼭 필요한 활동이죠. 모두 낮설고 어수선한 시간에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마음을 열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 인사하는 걸 보면 알죠.

다음 시간에는 비주얼싱킹(Visual Thinking) 작품 만들고 발표하기 과제를 안내했어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활동이에요. 비주얼싱킹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고 예시 작품도 보여줘요. 한 학기 동안 배울 주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하나씩 고르게 해요. 그러곤 자기가 정한 주제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읽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해요. 공부한 결과를 학습지에 메모해서 제출하도록 해요. 최소한의 활동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면 어렵지 않게 잘 따라오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1시간 남짓밖에 주지 못했어요. 그 대신 주제 학습 시간에 스케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품 만들기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제출하기까지 시간 여유를 줬어요. 부담을 줄여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죠. 색사인펜, 색연필, 유성매직, A4용지 등 기본 준비물은 부족하지 않게 챙겨서 갔어요. 완성된 작품을 제출하면 고화질로 스캔한 뒤 파일에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제

컴퓨터에 정리해 두고 원본은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자기 작품을 잊지 않고 발표 준비에 활용하도록 했어요. 이로써 드디어 한 학기 수업 준비를 마친 거예요. 중간고사가 4주 정도 남은 시점의 이야기예요.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면 <표 1-1> 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요. 학생들이 준비해 둔 비주얼싱킹 작품으로 수업 주제를 학생들의 언어로 조금 쉽게 설명해요. 몸 풀기 시간이라 할 수 있어요. 발표를 잘하거나 잘 못하는 학생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과정을 잘 따라왔느냐가 중요해요.

<표 1-1> 수업 흐름도



이어서 수업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제시해서 간단한 토의와 토론을 진행해요.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한마디씩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애를 써요. 한 학생이 꺼낸 이야기를 이어 다른 학생의 의견을 추가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연결 지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보통 시간이 30분 가까이 지나요.

다들 주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 학습지에 교과서 내용을 필기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요. 중요한 개념이나 의미가 담긴 단어가 들어간 자리에 빈칸을 만들어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그 과정에서 앞서 친구들이 설명한 비주얼싱킹 작품을 예로 들기도 하고 주제 탐구에서 나눈 이야기도 끌어들이어요. 학습지에 필기하는 이유는 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편이기도 하고, 학급별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해요. 늘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수업 마무리 활동은 질문하고 답하기 활동이에요. 1학기 말 수업 평가에서 이 활동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질문을 만들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잖아요. 2학기 들어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가끔 질문을 제시해 주

<그림 1-2> ‘질문하고 답하기’ 활동 자료

V. 질문하고 답하기 : QR코드 접속 후 작성

<https://forms.gle/6HXoBX4U2TpitBqJA>



1학년 2학기 수행평가

<통사유리>

질문하고 답하기 활동지(5점)

작성자 1학년 반 번 이름:

-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제시한 질문 또는 수업 중 갖게 된 질문을 적고 생각을 정리해서 작성합니다.
- 매시간 1개의 질문을 작성해서 자신이 생각한 답을 아래 조건에 맞게 쓰면 수행평가 만점을 받습니다.
- 학기말에 좋은 질문과 답을 1가지 골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으로 기록할 예정입니다.

1	
질문	
생각	
생각	
생각	
	(50자 이상 작성)

2	
질문	
생각	
생각	
생각	
	(50자 이상 작성)

3	
질문	
생각	
생각	
생각	
	(50자 이상 작성)

고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시간이 늘 부족해서 질문을 나누는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기고사가 끝나고 학기 말에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다시 되돌려 보는 활동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수업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이나 인터넷 데이터 요금 부담이 있는 학생은 등교수업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빈 교실 하나를 빌려 그곳에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해 놓고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뒀어요.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학생을 위해 스마트폰 공기계와 태블릿도 준비해 뒀어요. 원격수업에서는 구글 설문지나 멘티미터(mentimeter) 같은 도구를 활용해 링크로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수업에서는 QR코드로 접속해 작성하거나(1학기) 인쇄된 활동지(2학기)에 작성하기도 했어요.

매시간 이루어지는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 질문 만들고 답하기, 학습지에 교과서 내용 요약해서 쓰기 등은 수행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표 1-2>는 평가 항목 및 기준이에요.

<표 1-2> 수행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비주얼싱킹 작품 만들고 발표하기 (5점)	- 주제 또는 개념을 선정하여 학습한 결과 제출 - 제작 과정에 따라 작품을 제작, 제시간에 제출 - 교과서 내용에 더하여 자신의 독창적 관점의 포함 - 작품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
학습활동 포트폴리오 (5점)	- 학습 활동지를 작성하여 수업 종료 후 확인 도장을 받음 - 학기 말 전체 작성 제출한 학습 활동지의 개수로 양적 평가 - 구체적인 양적 평가 기준은 추후 안내
질문 만들고 답하기 (5점)	- ‘제시한 질문’ 또는 ‘생각한 질문’에 대해 생각을 작성 - 학기 말 전체 작성 제출한 질문과 답변 개수로 양적 평가 - 질문과 답변의 내용 우수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교사 세 분이 함께 같은 반을 맡아 수업하고 수행평가 성적을 산출하다 보니, 각자 맡은 점수의 비중은 크지 않아요. 학생들은 점수에 상관없이 참여하는 편이에요. '비주얼싱킹 작품 만들고 발표하기'는 주제 정하고 학습하기, 작품 스케치하고 만들기, 작품 제출하고 발표하기 등의 과제를 마치면 대부분 만점을 줬어요. 다른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그림 1-3>와 같이 학습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림 1-3>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 기록 사례

1.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 기록하기(이번 시간에 발표자가 없으면, 다음 시간 발표내용을 적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내용 : 장애인, 고용 제도, 공익근로제, 대학 입학 전형 등이 있다 반대 주장에는 역사별이 일어날 수 있다. (한계점) 혜택의 정도가 과도해서 찬성 주장으로는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 처벌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라고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번호 : 05. 	

비주얼싱킹 활동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이라 자칫 그림 실력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 취지에 맞지 않겠다 싶어 첫 시간에 충분히 알렸어요. '학습활동 포트폴리오'는 학습지를 빈칸 없이 잘 작성했는지 확인하고 양적 평가를 했어요. '질문하고 답하기'는 1학기에는 인터넷 도구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2학기에는 별도의 용지를 인쇄해서 나눠준 다음 작성하도록 했어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몇몇 학생의 수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했어요.

오늘 소개할 수업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해 동안 제가 가르치게 된 교과서 내용은 <표 1-3>과 같아요. 실제 수업을 해보니 1시간에 학습 주제 중 하나를 소화해야 하는 분량이에요. 평소 다루는 주제 대부분이 세계시민교육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개해 드릴 수업 사례는 <표 1-3>에서 음영 처리한 것들입니다.

교육과정에서 3개 중단원의 성취기준은 <표 1-4>와 같이 정리했어요. 핵심어를 각각 하나로 소개하면 '불평등', '세계화', '통일'이라 할 수 있어요.

'Ⅶ.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에서는 '불평등'이란 핵심어를 중심으로 사회

<표 1-3> 김병연 선생님이 한 해 동안 가르친 단원과 학습 주제

대단원	중단원	학습 주제	
I.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1.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01. 인간, 사회, 환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 02.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 문제 탐구하기	
	2. 행복의 의미와 기준	01.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02.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다	
	3.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01. 행복의 조건은 단순하지 않다 02. 행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조건	
	VI. 사회정의와 불평등	1.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	01. 정의의 의미와 역할 02. 정의의 실질적 기준
		2.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	01. 자유주의적 정의관 02.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01. 다양한 불평등 현상 02.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와 실천
VIII. 세계화와 평화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	01. 세계화에 따른 다양한 양상 02.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	
	2. 국제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	01.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은 무엇일까? 02. 평화는 왜 중요할까?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	01.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02.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은 왜 일어났나?	
		03.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정의 문제를 다룬 과정을 소개하려고 해요. 'VIII.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에 서는 '세계화'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세계화가 어떻게 전개되 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 학생들과 함께 살펴봤 던 내용을 소개합니다. 'VIII.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에서는 여러 학습 주제 중 하나인 '통일'을 주제로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해요.

<표 1-4> 중단원별 성취기준

핵심어	중단원	성취기준
불평등	VI.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세계화	VIII.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통일	VIII.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1.3.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갔어요

○ [사례 1] 불평등 현상과 사회정의

•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

1학기 말에 <VI. 사회정의와 불평등>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정의의 의미와 기준, 정의관에 대해 수업을 했어요. 2학기 들어서는 세 번째 중단원인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이란 중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했죠. <표 1-5>와 같이 작품 주제를 제시했어요. 작품 주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과 지식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표 1-5> 'VI.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비주얼싱킹 작품 주제

중단원	작품 주제
VI. 사회정의와 불평등 3. 불평등의 해결과 정의의 실현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 소개, 문제
	공간 불평등의 의미, 구체적 사례, 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구체적 사례, 문제
	사회복지제도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의 의미
	적극적 우대조치의 의미, 사례, 자신의 생각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1학기 때 발표했던 '젠트리피케이션'과 '배리어프리'를 주제로 그린 작품이에요. 불평등 문제와 이어지는 작품이라 함께 소개해요. 세 번째 그림은 화가와 가수들이 모여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를 형성한 이후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예술가와 원주민이 더는 그곳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렸어요. 네 번째 그림은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차별이란 장벽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표현했어요. 시내 저상버스 도입,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설치, 자막과 화면 해설이 추가된 영화 상영 등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례를 쉽게 설명했어요. 이들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경우와 같은 반 친구가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소 서툴더라도 학생이 설명하고 교사가 보완해 주는 방식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주제 탐구에서 나는 이야기

불평등 문제와 세계화를 다룰 때 영화와 드라마 이야기를 자주 인용했어요. 2019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던 영화 '기생충'과 2021년 9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는 사회 계층의 양극화, 빈부 격차와 차별, 불평등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아울러 이들 영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어요. 세계화 현상과도 맞물려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학생들은 작품에 담긴 메시지가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빈부 격차와 불평등, 차별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사실도 공유할 수 있었어요.

1학기 수업에서 사회적 재분배 관련 질문을 제시하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어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에 대기업과 비대면업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부의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번 쪽에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하여 재분배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어요. 학생들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작은 목소리도 있었어요. 국가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원치 않게 영업 제

한을 당했을 수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분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역사사지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불가피하다 등의 의견을 더해 주었지요.

‘사회적 재분배’ 주제 탐구 예시

II. [뉴스 톺아보기] 영상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분석해 보자.

- 기사 제목: 대기업·비대면 업종은 최대 매출... "표정 관리하라"
- 줄거리:
- 드러난 사회문제:
- '대기업·비대면 업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중소기업·자영업자'에 재분배하는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II.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교과서 181)

주장 1: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 2: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하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토의한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한가?"라는 토의주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어요. 학생들은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중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더 마음 편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보수를 산정하는 과정 하나를 다루더라도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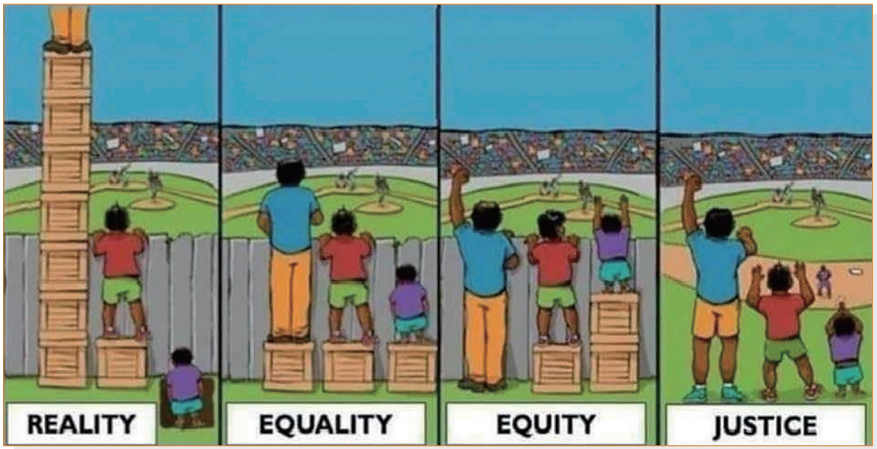
백신 공급에서 나타난 정의 문제도 함께 다뤘어요. 부자 나라에선 백신이 남고, 가난한 나라에선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뉴스가 되었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일시 제한하여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게 했어요. 안타깝지만 3가지 토의는 비슷한 수준에서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공정과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림 1-5>는 매우 유명한데요, 많은 비유를 담고 있어요.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학생들과 한동안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4컷 그림이 각각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각 그림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각각 어떤 집단을 상징하는지, 그림에 등장하는 받침대는 각각 성격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 질문을 통해 대화를 나눴죠.

<그림 1-5>에서 학생들은 현실(reality)과 이상적인 정의(justice)의 차이에 대해 비교적 쉽게 간파해 냈어요. '야구 게임을 본다'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비유한다고 말한 한 학생도 공감을 얻었어요. 각자 눈에 보이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울타리 밖 세 사람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장벽 없이 야구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에서 키가 중간 크기인 사람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포착해서 해석을 덧붙인 학생도 있었어요. 사회적 약자였던 옆 친구가 제대로 경기를 볼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쳐다본다고 해석한 친구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대등한 위치에 경기를 보게 된 데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어요. 작가의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4컷의 그림을 해석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불평등 문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은 확실해요.

<그림 1-5> '평등', '공평', '자유'의 용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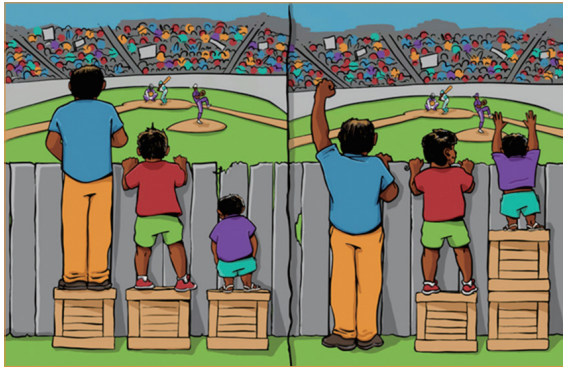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 갖는 성격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기로 했어요. <그림 1-6>을 제시하고 각 받침대가 비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했어요. 왼쪽 받침대와 오른쪽 받침대가 어떻게 다르며 각각에 해당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학생들은 왼쪽 받침대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학생에게 무상교육을 하거나 대입 시험에서 수능을 통해 같은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 등을 말했어요. 오른쪽 그림에서 사용된 받침대는 대입에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림 한 장을 두고서도 한 시간 동안 충분한 많은 사례를 다루고 쟁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그림 1-6> 받침대의 차이로 살펴본 사회 복지 정책

II. 우리 사회에서 그림의 받침대에 해당하는 사례를 3가지 적어 봅시다.
(교과서 186쪽)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 <그림 1-7>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 사례를 제시해 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해줬어요. 자신의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부정의 문제라 여겨지는 사례를 발표했어요. 간단한 단어 몇 개, 혹은 한 줄글이지만 이 글을 쓰기까지 그 학생이 마음속에 갖게 된 생각을 나누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에서 그 단어를 썼고, 그러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그림 1-7> '사회 불평등과 차별' 주제 탐구 예시

II.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의 사례를 3가지 제시해 보세요.

백신 불평등 10개국이 15%	성불평등 사모의사님... 등으로 직장성차	인종차별 래디 팡방... 흑백차별, 아시안차별.
---------------------	---------------------------	-------------------------------

장우적, 비장우적 채널, 대가업 임금 (중요업)

1	질문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는 이유를 위의 사례 중 1가지를 들어 작성해보자
생각	<p>옛날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 역사의 오랜비타함이 되었던 유교사상이 성불평등 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로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오랜관 풍파져 온게지리잡고있 었던데 평등해지려고 해도 유교사회의 이윤관계 불공정 부조리이다. 이러한것들이 은평 에 의한 후반되고 자기 권위되어 불평등한 권을 심화시키는역할을 (50자 이상 작성) 했기때문이다. 불평등현상은 그렇기때문에 가정내,직장내,각종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공간에서 나타날수 있다.</p>	

은개까지 참고있던
혹은이제가
강자기비평
하는었다

IV. 다음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차별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필수: 코로나19, 차별 + 선택: 노인, 어린이, 소상공인, 장애인, 남성, 여성, 기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해외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해
폭력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 백신 품에 있어서 10개국이
총 공급량의 75%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을 보냈어요. 이 과정은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다양한 사회불평등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고 발표하는 학생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여전히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학생이 소개하는 이야기가 교사인 제가 보기에 잘못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가 가끔 보여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학생 의견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늘 고민이 돼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논쟁 중인 사안의 경우 특히 예민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고 인정해 줘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한편에서 다른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는 저의 의견을 소개하고 앞

으로 눈여겨보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살피자는 말로 마무리해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수업에서 애매하게 제기된 문제에 더 집중해서 관련 자료를 찾고 공부한 다음 다시 학교에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과정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제대로 된 시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제가 지나치게 교육과정에 얽매는 게 아닌가 걱정도 돼요.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 운영 사례도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 [사례 2] 사회정의 관점에서 세계화 바라보기

•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

교과서에는 세계화로 인해 나타난 다양한 양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유무역이 가능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이 출현하였고, 세계 도시가 출현하였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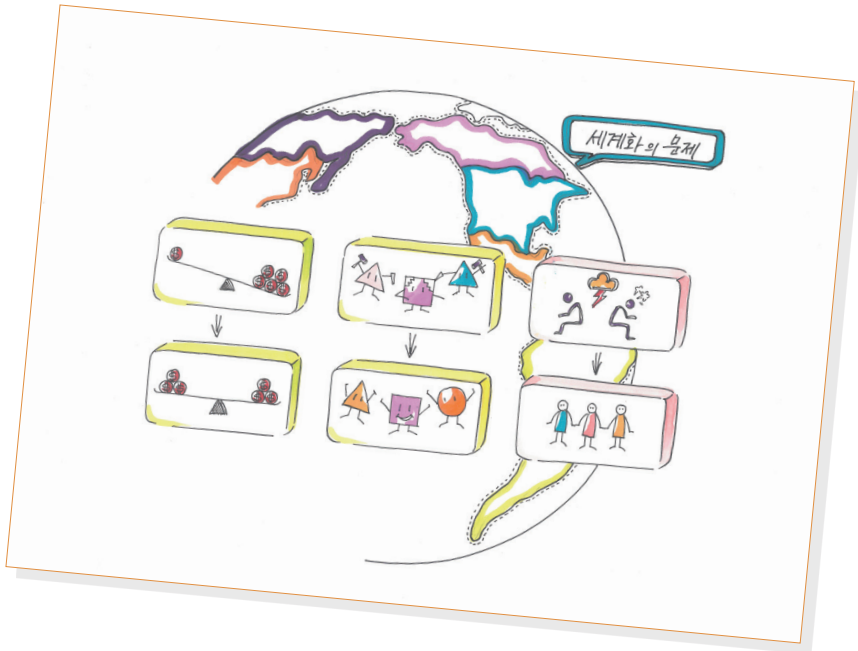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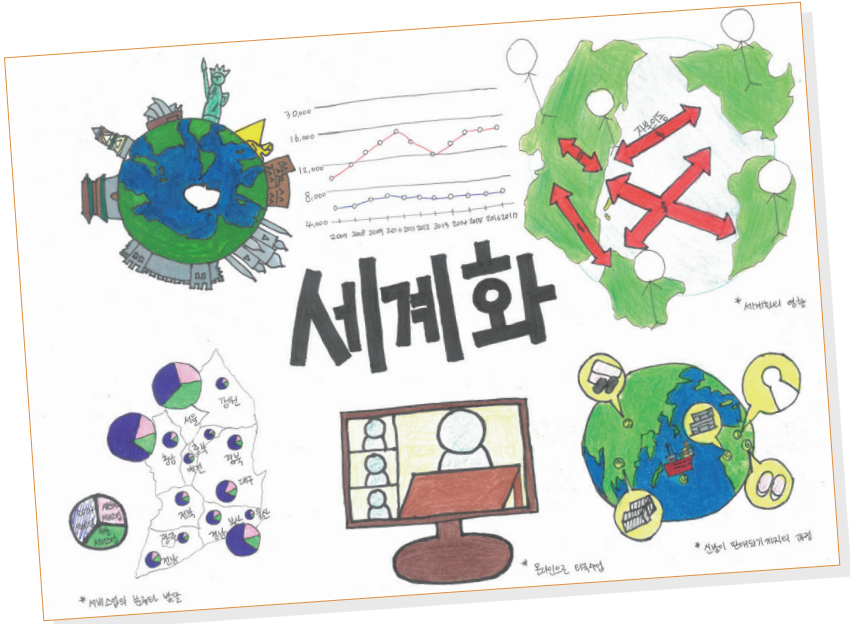
학생들이 교과서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자신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해요. 제 수업에서 늘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부분이예요. 작품 주제는 <표 1-6>과 같아요. 학생들에게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와 사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생각해서 작품을 구상해 보도록 했어요.

<표 1-6> 'Ⅷ.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 비주얼싱킹 작품 주제

중단원	작품 주제
Ⅷ. 세계화와 평화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	세계화의 의미, 구체적 사례, 긍정적 측면
	지역화의 의미, 구체적 사례, 긍정적 측면
	세계화 현상의 구체적 사례, 문제, 해결 방안

<그림 1-8>의 첫 번째 작품처럼 이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세계화의 의미를 한 눈에 이해할 만큼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신발 하나가 생산되기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자본과 제품,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지구상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공간적 한계를 어떻게 극

<그림 1-8> 'VIII.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 비주얼씹킹 작품 사례



<그림 1-8> 'VIII.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 비주얼씹킹 작품 사례 (계속)

01
•
02
•
03



복하고 있는지 등을 다루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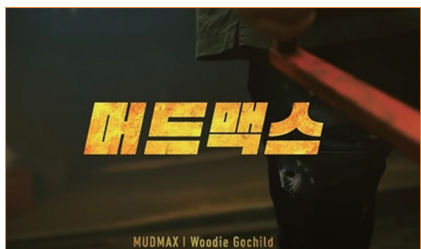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작품은 세계화가 초래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에요. 작품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빈부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기울어진 시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안으로 공정 무역을 소개하거나 저개발 국가에 기술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다양한 문화를 보유한 이들이 서로 같아지도록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 인종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공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라는 개념도 등장하는데, 깊이 이해하긴 어렵지만 서로 같등하기보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도 어렵지 않게 설명해 내요.

• 주제 탐구에서 나는 이야기

세계화와 지역화를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유튜브 브 영상을 통해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학급 수 감소로 생긴 빈 교실 하나를 빌려 수업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오기 전에 미리 교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기다릴 때가 많아요. 이때 자연스럽게 한국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와 '서산 머드맥스' 영상을 틀어주는 거죠. 흥미 있는 영상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여줍니다. 영상이 끝나면 바로 수업 주제와 연관 지어 이야기를 시작하면 돼요.

'서산 머드맥스'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관광 홍보 영상 중 하나예요. 충남 서산의 문화유적과 갯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지역의 독특한 모습을 다뤘는데 영화 머드맥스를 패러디했다고 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10월 초 현재 조회 수가 3,000만 회 가까이 이르고 있어요. 그룹 이남치가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에 맞춰 만든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영상은 2020년에 소개되었는데 현재 5,000만 회 가까이 누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세계화 현상과 연결 지어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특수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전통 유적이거나 갯벌 같은 자연환경을 주제로 한 영상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현상을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 '서산 머드맥스'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 '범 내려온다'

지역화와 연관 지어 이야기했어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도 학생들은 세계화 현상의 하나로 이야기했어요.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를 마치고 주제 탐구로 '내 삶에서 세계화를 느끼거나 생각해 본 순간'을 써 보도록 하는 활동을 했어요. 학생들은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름방학이 지나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와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과일과 음식을 일상에서 쉽게 즐길 수 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작성한 댓글을 볼 때,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인터넷 쇼핑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등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하여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설명한 학생도 있었어요. 작은 질문 하나로 세계화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세계화 문제를 다뤘던 다음 시간에는 '세계화가 기쁜 사람/나라', '세계화가 슬픈 사람/나라' 등을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어요.

누가, 어떤 기업이, 어떤 나라가 세계화를 기뻐할까요? 학생들은 세계화로 시장이 커지면서 선진국이 돈을 벌 기회가 많아 기쁠 것 같다,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먼저 개발한 업체가 기쁠 것 같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간적 분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생산과 유통을 할 수 있는 선진국이 기쁠 것 같다,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기쁠 것 같다, 미디어 환경이 익숙한 부유층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기쁠 것 같다, 문화가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 자신의 나라 문화가 널리 전파되는 나라가 기쁠 것 같다 등 다양한 사례를 얘기했어요.

<그림 1-9> '세계화' 주제 탐구 예시

[질문하고 답하기] 세계화가 기쁜 사람(나라), 세계화가 슬픈 사람(나라), 어떤 사람(나라)이 있을까? 각각 1가지씩 써봅시다.

세계화가 기쁜 사람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슬픈 사람은 ~~~~~이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4	
질문	세계화가 되면서 슬픈사람과 기쁜사람은 누구일까.
생각	<p>세계화가 되면서 기쁜 사람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왜냐하면 무역을 할 때 (거대한) 특화된 상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은 거래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슬픈 사람은 개척하지 못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인 미국 같은</p> <p>경우는 노동자 & 직권들의 권리를 중요시하는데 비록 같은 경우에 얼마전에 자기들은 (드라마) 영화를 만들 때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진 (60자 이상 작성)</p> <p>영화사 오만 거래할 것이 아니고 하는 등 공정회사라고만 거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되면서 국가와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만큼 우리도 노력해야겠다.</p>

반대로 슬퍼할 사람, 나라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되어 손해를 본 우리나라 농민들, 자기 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인 소수민족, 관광자원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사람들, 개발도상국의 빈민층 등을 떠올렸어요.

질문을 바꾸어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현상이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다른 나라 TV에서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될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죠. 반대로 서양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의식주를 비롯해 우리 문화를 찾기 어려워진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되었어요.

○ [사례 3] 영화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 탐구

• 비주얼싱킹 작품 발표

마지막으로 들려 드릴 수업 이야기 주제는 '통일 문제'예요. 통일 문제는 우리 모두

의 삶의 공간인 한반도 평화 문제와 직접 연관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통일이 한반도의 특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화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통일과 관련한 논의가 세계시민교육을 비롯한 다른 교육 주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다양성 존중, 공동체 의식, 상호 의존 인식과 연대 의식 등 핵심 요소가 통일교육에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 주제가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주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한명 한명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부 주제나 소재는 다를지라도 그 속에 담긴 교육철학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통합사회' 과목에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Ⅷ.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라는 중단원에서 남북 분단 문제를 살짝 다루고 있죠. 이 단원의 성취기준은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예요. 중단원 전체를 다룰 시간은 3~4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에 남북 분단 문제도 다루고 동아시아 역사 갈등도 다루고 나아가 국제 평화에 기여할 방안도 탐구해야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하나의 주제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작은 질문에 답하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해 가는 수업을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을 모두 다루려면 수박 겉핥기로 지나갈 가능성이 커요.

분단, 통일 문제와 관련한 작품 주제는 <표 1-7>와 같이 제시했어요. 사실 교과서에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명으로 남북 분단의 배경, 통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는 북한이나 통일 문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학생이 많아요. 이렇게 설명했다간 학생들에게 그저 그런 수업으로 지날 것 같아 1시간밖에 할 수 없는 조건이지만 욕심을 부렸어요.

작품 주제를 조금 더 균형 있고 다양하게 제시했어요. 음식을 소재로 남북 분단을 고민해 보거나 통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탐구하도록 안내했어요. 학생들이 흥미가 있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의외로 이 주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학생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끌어낼 계기를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짧은 시간 수업이 학생들의 가치판단에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표 1-7> 'Ⅷ.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 비주얼싱킹 작품 주제

중단원	작품 주제
Ⅷ. 세계화와 평화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	남북 분단의 아픔, 의미가 담긴 음식들(예: 밀면)
	남북 분단의 아픔, 고통, 불편함의 사례
	남북 분단의 배경, 과정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
	통일된 한반도, 어떤 점이 좋아질까?
	통일된 한반도, 어떤 점이 걱정일까?

<그림 1-10>의 첫 번째 작품은 남북 분단의 아픔과 분단의 의미가 담긴 음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분단 과정에서 전쟁을 겪고 피란을 가면서 서민들에게 새롭게 자리 잡은 음식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러한 작품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 분단의 흔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 작품은 분단의 고통, 불편한 점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에요. 학생들은 남과 북의 군비 경쟁이 계속되면서 국방비로 지나치게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여 년 동안 인적 왕래가 끊겼고 비행기를 타야 다른 나라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 남과 북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서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세 번째 작품은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그림이에요.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고 교류가 활발해지며 경제가 성장해서 취업이 더 쉬워질 거란 내용이 보이네요. 군대를 더 많이 유지하지 않을 수 있고 남과 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그렸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학생들의 마음속엔 통일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그것도 함께 다뤘어요. 통일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통일 비용이 너무 많아 국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생각, 언어의 차이로 소통이 어려울 수 있

<그림 1-10> 'Ⅷ. 3. 동아시아 갈등과 국제 평화' 비주얼씹킹 작품 사례

01

02

03



다는 의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어요.

학생들의 발표를 듣게 되면 칭찬을 많이 하려 해요. 그리고 그림에서 세부적으로 표현한 이유를 부가적으로 묻기도 하고 제 생각을 살짝 엿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면 '무엇이 옳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려 애를 써요. 판단은 학생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다만 교사 주도의 수업보다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이 공유될 수 있는 수업이 더 많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 주제 탐구에서 나눈 이야기

어떤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할까 고민을 했어요.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학생들이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림 1-11>은 '2021년 현재 한반도에서 나의 삶은 평화롭다'는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해 보게 한 결과예요.

대부분의 학생은 우리나라가 '평화롭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뉴스를 통해 북한과 빗어지는 갈등 소식을 접하긴 하지만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이 없다, 누리고 싶은 것은 웬만큼 누리고 있다, 복지제도가 발달해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등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 문제, 공부와 입시 압박감, 뉴스에서 가끔 들려오는 북한과 빗어지는 갈등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학생 다수가 삶이 평화롭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분단이라서 슬프지?",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던 2018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전쟁 위기설이 돌았던 2017년 이전에는 초등학교생이어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어서 불편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만저만 난감한 게 아닙니다. 잠시 망설이다 다른 실마리를

<그림 1-11> '남북 분단 문제' 주제 탐구 예시 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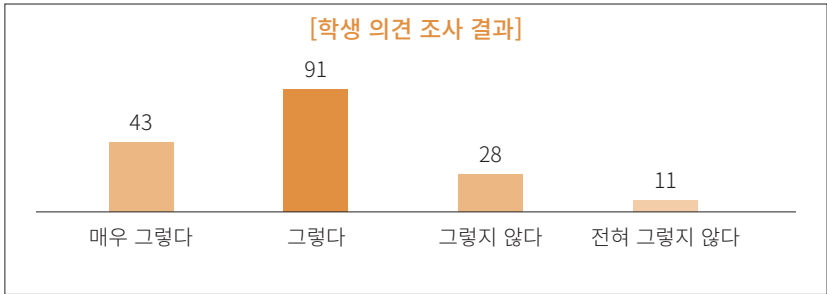
02

03

[질문하고 답하기] 아래 문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이유를 적어보세요.

"2021년 현재 한반도에서 나의 삶은 평화롭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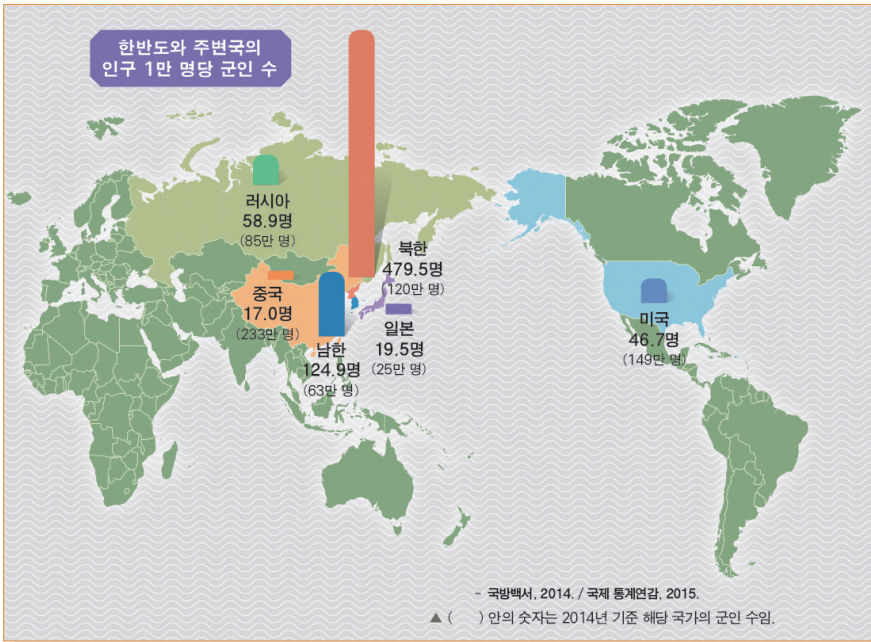
5	
질문	2021년 현재 한반도에서 나의 삶은 평화롭다.
생각	<p>사 ② 그렇다</p> <p>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표면적인 모습에만 집중해 말하자면, 매우 그렇다(①)에 해당되지만, 더 나아가서 국제/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참정적 전쟁 위험, 환경오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100% 평화롭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50자 이상 작성)</p> <p style="text-align: center;">등의 외부요인들</p>

잡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 가 봤습니다. <그림 1-12>을 함께 보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자 했어요.

그림을 보여주자 여기저기서 '어머!'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림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질문을 던졌어요. 학생들은 다른 나라는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다, 우리도 3년 후에 저 막대기 속 군인수에 포함되겠다, 남과 북의 20대가 군대에 많이 가고 있다, 우리의 현실이다, 슬프다 등의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익숙하며, 평화롭다고 여겨 왔던 우리 삶의 공간에 대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는 된 것 같아요.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들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분단을 문제로

<그림 1-12> 한반도와 주변국의 인구 1만명당 군인 수



느끼지 못하는 학생 처지에서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함께 해석하면서 그동안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생각할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통일은 논외로 하고 <그림 1-13>처럼 지금보다 나아져서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국방비가 줄어 들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다, 열차를 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갈 수 있겠다, 다양한 나라와 문화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등 기대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편 교류가 많아지면서 사회가 더 혼란해질 것을 걱정하는 학생도 일부 있었어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남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면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 질문을 제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림 1-13> '남북 분단 문제' 주제 탐구 예시 2

01

02

03

[질문하고 답하기] 아래 문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선택하고 이유를 적어보세요.

남북, 한반도와 대륙 사이에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_____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_____이기 때문
 이다. 나는 그 상황에서 _____하게 살 것이다.

6	
질문	남북, 한반도 - 대륙사이의 철도 연결에 대한 나의 생각
생각	남북, 한반도 대륙 사이에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개방적인 교류와 활발한 문화의 교류의 여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통의 효율성이 분단되어져 있을 때 보다 훨씬 좋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물건과 문화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황에서 철도 건설에 의해 더욱 부유해진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물건 문화 등을 즐기며 (50자 이상 작성) 살아갈 것이다.

6	
질문	남북, 한반도 사이에 철도가 연결돼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생각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만큼의 자본력이 없기 때문이다. 2500만명을 키워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그 상황에서 이면을 가서 살 것이다. (50자 이상 작성)

어떤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 학생들과 다를 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너무 오랫동안 섬나라처럼 살다 보니 대륙을 오가는 삶을 상상할 힘을 잃어버
 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1.4. 수업을 되돌아보며

처음에 사례 발표 제안을 받고 제 수업이 과연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어떤 완벽한 수업 사례가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과 수업의 사례를 소개하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주변에 함께 있는 동료 교사의 수업 이야기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수업은 종합예술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준비한 동기 유발 영상이나 활동이 학생들에게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하면 연출자인 교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자료를 보강해서 들어가요.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지만, 학급에 따라 반응이 매우 다르기도 하죠. 학급 분위기, 수업 시간 등 변수가 많죠. 수업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중요하죠. 말씀드린 수업이 언제나 물 흐르듯 원만하지는 않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전히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어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수업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학생들, 수행평가 과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발표한 학생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준 힘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업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도 있겠지만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돼요.

고등학교에서 교과 수업 시간은 바쁩니다. 교사도 바쁘고 학생도 바쁩니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준다고 하지만 교사가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서 수업하고 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어요. 함께 수업하는 교사들, 다른 학급 학생들도 함께 고려하다 보면 수업이 무미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충실하게 다루면서 그와 동시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에 근무할 때는 한 학년 교과를 혼자서 가르치는 일이 많고 시험 부담도 적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더 많이 다루고 학생활동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새 교육과정이 나오면 고등학교에서도 교육과정을 교사가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

융합 여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교사도 학생도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진득하게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아졌으면 더할 나위 없겠어요.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관점이 다양한 교육 주제를 관통하는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과정에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교과별 혹은 교과 내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냈으면 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지금처럼 많은 주제를 담아놓고 다루게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산발적으로 주제를 언급하는 수준에서 지나갈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깊이 탐구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나누고 듣고 성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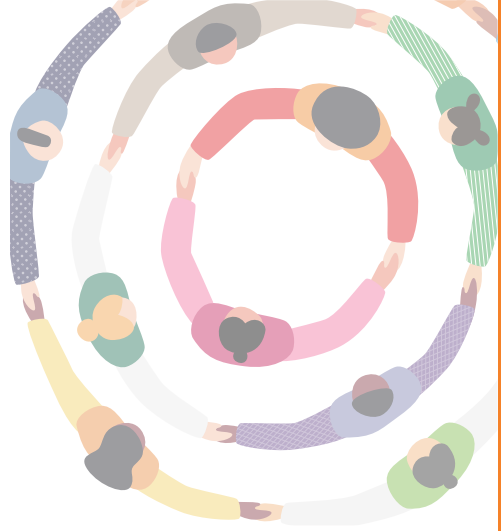
이를 위해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평화·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울타리를 조금 낮췄으면 해요. 마치 각 주제가 독립적인 것으로 여기며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 주제는 상호 유기적으로 융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또 학생 모두 종합적, 융합적으로 마음에 내면화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사회 문제를 다양한 관점, 다양한 주제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사들도 세계시민교육을 나와 상관없이 먼 주제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앞서 전인교육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르치는 학교 급과 교과목이 다르지만 그러한 교육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면서 학생을 만났으면 해요.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하도록 돕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학생 한명 한명이 우리 사회와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토의와 토론의 장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2.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는 '세계시민'

윤신원(서울 성남고등학교)
황태성(서울 상명고등학교)



2.1. 선생님은 왜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요?

2.2. ‘세계시민교육’, 어렵지 않아요!

[사례 1] 세계화와 먹거리 문제

[사례 2]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사례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2.3.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우리 함께해요

2.1. 선생님은 왜 ‘세계시민교육’을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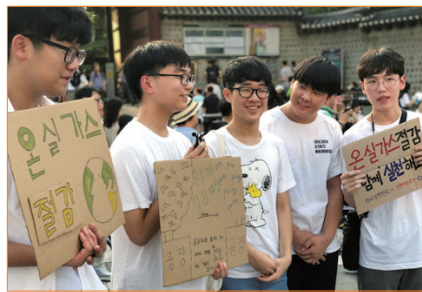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두 분이 만나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분들은 서울 성남고등학교 윤신원 선생님과 상명고등학교 황태성 선생님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의 모습과 지구촌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곳'의 일들을 연결하는 교육,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두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이하 윤신원=윤, 황태성=황)

Q 선생님은 어떻게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남고등학교 교사 윤신원입니다. 지리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내에서 환경동



차이나타운을 탐방하는 서울테마답사반



기후 행동에 나선 '내셔널트러스트' 환경동아리원들

아리 '내셔널트러스트(NT)'와 답사동아리 '서울테마답사반'을 지도했습니다. 학생들과 통합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등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가깝게는 마을의 이야기부터 멀게는 지구촌 곳곳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황: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리 과목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 황태성입니다. 저는 과거에 1년 동안 국제개발 NGO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세계시민교육에 더 의미를 두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다른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 교사에게 국제개발 NGO 활동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황: 대학 시절,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책과 강의실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 보고 싶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지역도 많이 가보고 싶었고요. 무엇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국제개발 NGO 한 곳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제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제3세계 국가라고 부르



아프가니스탄 활동 시절의 황태성 선생님

는 곳이 어떠한지, 선진국이 어떻게 이들 나라를 돕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등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지리 수업 시간에 이들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세상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갖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1년 후, NGO 활동가 분들과 함께한 스터디 모임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교육이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한 국제교육개발 NGO를 만나 관계를 맺고 활동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갈

이하는 여러 활동가와 선생님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Q ‘아,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이구나!’ 하고 느꼈던 경험을 소개해 주세요.

윤: 세계시민교육은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 간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터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꾸려가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명제가 결국은 세계시민교육의 모토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세계지리 수업 수행평가로 한 달에 한 번, 신문 스크랩 활동을 하거든요. 일명 '내가 뽑은 올해의 Geo-News'입니다. 학생들은 일 년 동안 6개의 국제 기사를 골라 스크랩하고, 기사 주제와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활동을 해요. 수업 시간 중에 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 주기도 하고요. 한 해 수업을 마칠 때쯤 학생들이 "선생님, 이제 TV에서 국제 뉴스가 나오면 들리고, 신문에서 다른 나라 기사가 나오면 읽게 돼요"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런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 아닐까 생각하죠.

황: 2015년 우리나라에서 '세계교육포럼'이 열리면서 '국제개발협력교육', '국제이해교육', '시민교육' 등의 용어가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서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립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즈음부터 저는 학교에서 세계지리 수업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이 시대의 우리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세계시민교육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보거나 특정 교과에서만 진행되는 교육으로 보기도 하는데, 머지않아 매일의 일상적인 수업과 학급에서 이뤄지는 보편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지리 시간에 다른 나라 여성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확장되어 몇 명의 여학생이 일상에서 겪은 '우리나라에서 여성(여학생)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에 대해 눈물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에 대한 열린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했습니다.

Q 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황: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공부하면서 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교사가 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이다." 교사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나는 아니었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는 공허한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자신이 가진 편견과 틀을 조금이나마 바꾸기 위해서 세계시민교육을 배우고 실천해야 해요. 유네스코에서 정의하는 정의롭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의 교육활동이어야 하잖아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에 교사가 이 패러다임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해요. 저는 시대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아이에게 "세상은 이런 거야"라고 말할 때 일부는 맞겠지만 일부는 과거 자신의 경험에 갇힌 주장일 수도 있죠.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20세기에 유년 및 청년 시절을 보낸 제가 '초연결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더욱 세계시민교육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부터 세상의 흐름을 인지해야 아이들에게 삶의 큰 방향이나마 제대로 안내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방향성, 정의롭고 평화롭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함께 공감하고 삶의 기준으로 세워 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대의에 동참할 때 지구도 지속가능한 세상이 되고, 그 공간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행복할 테니까요.

우리들의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은 멀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제 지리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통해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교육을 만나볼게요.

2.2. '세계시민교육', 어렵지 않아요!

○ [사례 1] 세계화와 먹거리 문제

● 세계화 단원에서 배우는 먹거리 문제

'세계화'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여러 과목에 있어요. 직접적으로 교과서 단원에서 '세계화'를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고, 내용적 배경과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세계화'를 다루게 되는 부분도 많아요. 통합사회 과목의 경우 <Ⅷ. 세계화와 평화> -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세계지리 과목의 경우 첫 번째 대단원 <Ⅰ.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 세계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 대단원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 - '1.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 블록'의 형성에서도 세계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세부 내용에서 세계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계적이고도 지역적인 내용이 많이 있지요.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식탁의 먹거리 문제에서 세계화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가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어요.

<표 2-1> '세계화와 먹거리 문제' 관련 단원

과목	대단원	중단원	학습 주제
통합 사회	Ⅷ. 세계화와 평화	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	01. 세계화의 의미와 양상
			02.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
	Ⅰ. 세계화와 지역이해	1. 세계화와 지역화	01.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
			02. 세계화와 지역화의 영향
세계 지리	Ⅲ.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4.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01. 세계의 주요 식량 자원
			02. 식량의 국제 교역 증가와 이동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	1. 경제 세계화에 대응한 경제 블록의 형성	01. 경제 세계화의 의미와 영향
			02. 세계 주요 경제 블록의 형성

● 나의 아침 식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세계화의 현상에 대해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는 글로벌 햄버거 가게의 지역화된 메뉴가 소개되거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고기버거, 인도에서 판매되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베지터블버거와 커리가 들어간 버거, 중동 지역 아랍 국가의 할랄비프가 사용되는 버거 등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한 시대에 각 지역의 지역화 사례로 친숙한 먹거리가 사용되고 있어요. 또한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는 각 지역의 독특한 먹거리도 소개되고 있지요.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우리의 식탁에 오는 과정을 통해서 국내의 다양한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각 지역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가를 학생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교과서와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사례를 들어주고 자신의 밥상에 오르는 음식을 떠올려 보게 할 수 있어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먹어보지 못했거나 매우 비싸고 귀했던 음식을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는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직접 알아보고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와 참고할 만한 책 목록을 주고, 자신의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중 한두 가지를 선정해서 그 과정을 탐구해 보도록 했습니다. '나의 아침 식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주제였어요. 원료의 생산지는 어디인지, 그 원료는 어떻게 생산되는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생산, 가공, 유통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운송되는 과정도 알아보도록 했어요. 학생들에게 던진 탐구 질문은 거창하지 않아요.

자신의 아침 식사 사진을 찍고, 핵심 재료가 되는 식품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시각화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침 밥상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된 것은 분명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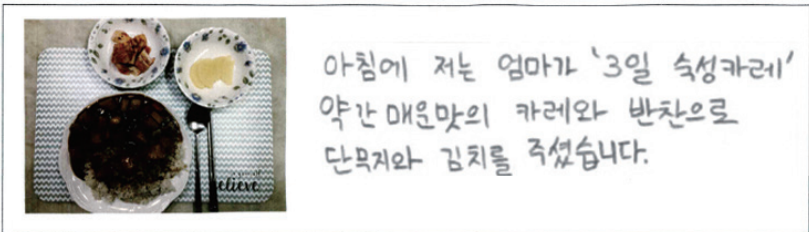
평소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도 이 수행평가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유 한 잔이라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우유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더군요. 의도하지 않았던 교육적 효과(?)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른들

<그림 2-2> '나의 아침 식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활동 사례 1

01
•
02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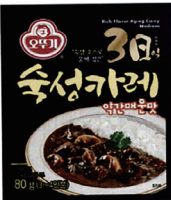
1. 나의 아침 식사 (저는 오늘 이렇게 먹었습니다.)
2. 주요 재료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3. 아침 식사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 깊이 생각한 점 등 간단한 소감을 에세이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

1. 나의 아침 식사 (저는 오늘 이렇게 먹었습니다)



2. 주요 재료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 카레의 주요 성분인 '밀'과 '강황'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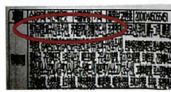
- 카레의 주 재료인 밀가루와 강황은 어디에서 오는것일까?

오투기 '3일 속성카레'의 원재료명에 제일 먼저 밀가루와 카레분(강황)이 표시되어 있다.

밀가루에 강황에 대한 궁금증을 오투기고객상담실 (080-024-2311)에 문의하였다.

밀가루가 가장 먼저 표시되어 있는 만큼 모든 재료 중에서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할 거라 예측되었다. 그래서 밀가루가 카레에 몇 %차지하는 물었다. 하지만, 레시피의 노후적인 부분이라 대외적으로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였다.

미국과 호주에서 밀자체를 수입하여 다른 업체에 제분을 맡기고 그 밀가루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3. 아침 식사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 깊이 생각한 점 등의 간단한 소감을 에세이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

「나의 아침 식사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수행평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일단, 이 카레가죽 하나에도 아주 다양한 재료들이 여러나라에서 온다는 것이다. 조사하기 전에는 카레에는 강황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 강황 보다 밀이 더 많았다. 이를 통해 밀에 대해 더 잘 알게되었다.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를 조사해도 자연과 인문환경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쉽게 먹을 수 있는 카레의 주재료인 밀과 강황이 어떻게 오는가를 살펴본 학생의 사례입니다. 카레 하나에도 다양한 재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다는 것, 생산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2-3> '나의 아침 식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활동 사례 2

1. 나의 아침 식사 (저는 오늘 이렇게 먹었습니다)



3월 31일 일요일에 차려진 우리 가족의 아침 식사 모습이다. 밥과 메인 음식인 닭 볶음탕과 그 외에 버섯 전, 김치, 호박 볶음, 깻잎 장아찌, 마늘쫘 장아찌 등이 반찬으로 나왔다.

2. 주요 재료가 내 식탁에 오기까지...(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래픽(다이아그램), 지도 등에 표시해 주세요.
 뒷면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1! 닭고기/육용종과 산란농장에서 닭 사육 : 닭은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가?
 허림은 전북 익실군과 순창군에 위치한 육용농장과 산란농장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또한 허림은 닭에게 직접 허림 사료공장에서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허림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허림은 자연설록 사육농가가 96가구 있는데 이 곳은 청천지역,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마늘이 함유된 기능성 사료를 먹여 건강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또한 사료에 항생제, 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엄격한 사육 기준을 '지킨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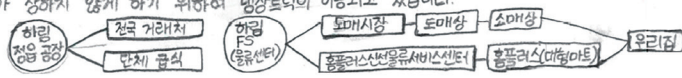
사진 출처 : 허림 홈페이지

3. 유통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집까지 오게 되었을까?
 <앞서 말했던 허림 정육공장에서 등급포장까지 거친 닭들은 냉장상태로 전국 거래처 및 단체 급식 등에 제공하거나> 또는 허림 FS(물류센터)에서 **도매시장**에 유통되고 다시 **도매상**으로 유통되어 **소매상**이 이를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형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유통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홈플러스신선물류서비스센터에 유통되어 홈플러스에 전달하여 판매하는 형식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은 닭고기가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냉장트럭**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제 단계: www.horim.com

출처: 네이버 지도 <https://map.naver.com>



닭볶음탕에 들어간 닭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었는가를 살펴본 학생의 사례입니다. 전체적인 양계 산업의 구조를 파악했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식탁에 오르는가에 대해 잘 살펴본 사례입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을 하면서, 이 밥 한 그릇이 상위에 오르기까지 농부를 비롯해서 수고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후기도 많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세계화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었지만 먹거리를 통해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대 세계의 산업을 비롯해 경제 환경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어요. 로컬 푸드와 관련된 주제를 언급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식품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 먹거리를 통해 배우는 ‘다양성, 분배 정의, 안전성, 환경 문제’

세계지리 세 번째 대단원인 <Ⅲ.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관> - '4.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에서는 단순한 먹을거리를 넘어 세계의 식량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학생들이 아침 식탁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다루었던 내용을 세계 경제 및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확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계화된 세계에서 먹거리(식량)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 각 지역의 먹거리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 각 지역 자연환경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고, 다양한 식생활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과 밀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의 자연 환경의 차이를 이해하면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칼과 포크 혹은 젓가락을 사용하는 지역과 손으로 음식을 먹는 지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어요. 오징어와 문어를 신화 속의 괴물로 인식했던 북유럽 국가,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아서 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몽골 등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했어요. 모둠 활동을 통해 손을 사용하는 나라의 사정을 대변해 보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함께 하나의 찌개 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넣는 한국식 밥상 문화에 관해서도 이야기

해 보면서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수업이 될 수 있었어요.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가 국경을 넘어 소개되고 융합되는 사례를 통해 세계화된 현대 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최근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 외국 음식을 알아보면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나라의 음식이 외국에 소개되고 전파되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것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문화적 콘텐츠로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어느 곳에서 생산되고, 어느 곳으로 이동하고, 결국 우리 앞에 옵니다. 어떤 곳은 먹거리가 생산되기 어렵고, 어떤 곳은 먹거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같은 먹거리라도 이 곳과 저 곳엔 다르게 먹습니다. 그렇기 우리는 먹고, 그렇기 우리는 살니다.

먹는 것 도 지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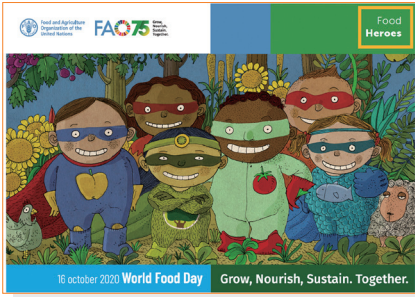
자연환경, 관습, 종교, 경제활동, 문화적 특성

▲ ‘세계화와 먹거리 문제’ 수업 활용 자료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반영하는 먹거리가 글로벌한 현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관련 책을 소개하고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봅니다.

식량 자원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먹거리를 둘러싼 세계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 생 각해보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려고 했어요. 먹거리를 둘러싼 전 지구적인 이슈를 알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 핵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해결을 위해서 연대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참여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교사인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식량의 생산과 분배의 문제예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전 세계인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지만 여전히 기아에 처해 있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매년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주요 기사와 통계자료를 모으고 업데이트 하는 것이 귀찮고 복잡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수업하는 시기의 기사와 자료로 수업을 구성하여 그 시기의 국제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조금 더 넓혀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식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국제 곡물 메이저의 영향력, 플랜테이션 작물 재배로 발생한 문제들, 음식물 쓰레기 문제 등을 살펴보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이후 모둠 활동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했어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나오는 실천 방안을 넘어 실제 자신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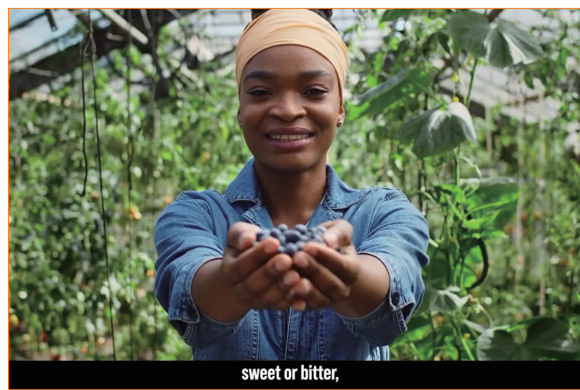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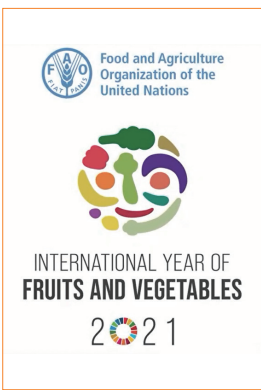
두 번째 이슈는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예요. 교과서에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GMO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는 GMO를 포함해서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알아 보도록 했어요. 학생들은 '나의 식사는 어디에서 오는가?'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먹거리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관심을 넘어 농가와 식품기업 등 관련 산업 전체를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먹거리 시민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크게 흥미를 가졌던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좋아하는 치킨이었어요. '순살치킨에 많이 사용되는 브라질산 닭은 안전한가?', '왜 하필 지구 반대편 나라의 닭을 사오는가?', '우리나라 특정 브랜드의 닭은 정말 좋은가?' 등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줄 알고,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자세가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치킨을 주제로 시작한 질문이 동물 복지의 문제, 축산물 계열화 등 먹거리를 둘러싼 경제와 산업 전반으로 질문이 옮겨갔어요. 한 명의 교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에 모두 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런 질문을 할 줄 아는 학생이 되었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주관하는 ‘세계 식량의 날’ 관련 자료를 활용해 해당 시기의 전 세계의 식량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2020년의 경우, 주제는 “Grow, Nourish, Sustain. Together”였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빈곤, 기후 변화, 분쟁, 식량 손실과 더불어 바이러스와 팬데믹을 꼽고 있습니다.



▲ FAO에서 만든 짧은 영상을 보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토론합니다.



▲ 2021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과일과 채소의 해’입니다. 짧은 영상과 관련 자료를 보고, 지역의 과일과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소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또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 과일 및 채소 관련 SDGs

다면 수업의 목표가 어느 정도는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슈는 먹거리를 둘러싼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예요. 먹거리산업은 기후 위기와 크게 연결되어 있어요.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축산물 공급 확대는 목초지 확대, 사막화, 열대우림 파괴 등과 연결되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생산되는 기후 작물(커피, 차, 카카오 등)은 제3세계 국가의 환경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로컬 푸드 운동, 공정 무역, 채식 운동 등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의미가 있고 세계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소개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먹거리와 관련된 수업을 통해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지구촌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행동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연대할 줄 아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갔으면 하는 것이지요. 물론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교사가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 [사례 2]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 기후 위기의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다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는 지리 교과와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 과목에서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지리 교과가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넘나들며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과 생태계의 관계를 배우는 교과이기 때문이죠.

통합사회 과목의 경우 <Ⅱ.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이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단원 전체에서 '기후 위기'를 주제로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원인 <Ⅸ.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에서는 '2.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3. 지구촌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주제로 폭넓게 수업할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 과목에서도 대단원 <Ⅱ.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에서 기후 변화

<표 2-2>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관련 단위

과목	대단원	중단원	학습 주제	
통합 사회	II. 자연환경과 인간	1.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01.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끼치는 영향 02.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01.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02.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0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의 노력 02.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차원의 노력	
	IX.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2. 자원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01. 자원의 분포와 소비 0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	
		3. 지구촌의 미래와 우리의 삶	01. 지구촌의 미래 02.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II. 세계의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1~3. 열대, 온대, 건조 및 냉·한대 기후환경	01. 기후의 이해 02. 기후 지역의 특징과 주민 생활
	세계 지리	III. 세계의 인문 환경과 인문 경과	5.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	01. 에너지 자원의 특성 및 지역별 생산과 소비 02.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분포 및 이동
		V.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3. 사막화의 진행	01. 사막화의 원인과 진행 지역 02. 사막화의 진행으로 인한 지역 문제와 해결 노력
		VII.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3. 자원 개발을 둘러싼 과제	01.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자원 개발 02. 환경 보존과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VIII. 평화와 공존의 세계		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01. 지구적 환경 문제와 지구촌의 노력 02.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실천 방안	
III.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3.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01. 자원의 특성과 분류	

<표 2-2>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관련 단원 (계속)

과목	대단원	중단원	학습 주제
한국 지리	Ⅲ. 기후 환경 과 인간 생활	3.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	02. 자원의 분포와 이용
			03. 자원 문제와 대책
			01.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한국 지리	Ⅴ. 생산과 소비의 공간	1.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02.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03. 식생과 토양 및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룰 수 있고, 거의 모든 지역지리 대단원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다뤄볼 수 있어요. 마지막 대단원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는 '2.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과 대처', '3.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수업이 가능해요. 여행지리 과목에서도 '기후 지리 여행' 단원과 '지속가능한 여행' 단원이 있고, 한국지리 과목에서도 <Ⅲ.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이 있어요. 변화하는 기후 위기 상황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수업은 지리 교과 전반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 기후 변화, 누군가에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전 지구촌이 함께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가 되었어요. 관련 영상 자료와 TV 뉴스, 신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최근의 소식을 학생들에게 전해주

면 좋을 듯합니다. 다양한 영상과 일기자료를 활용해 다각도로 생각해 보며, 환경 문제 및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했어요.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쓰도록 한 후, 모둠별로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자신의 생각을 모둠원들과 나누는 학생들

시간을 가졌어요. 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하도록 지도하는 게 좋겠지만, 혹시 질문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교사가 적절한 질문을 제시하는 것도 좋아요.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는 당위적으로는 해결해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해결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신의 삶의 문제로 들어오면 다양한 갈래로 생각이 나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건지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평소엔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던 학생도 자신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외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요. 이 경우 기후 정의와 환경 정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부, 기업, 사회, 마을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줄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몇몇 영상과 글을 사례로 소개할게요.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활동 사례 1

영상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 Q. ‘제7의 대륙’이라 부를 정도로 거대한 플라스틱 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Q. 이처럼 거대한 플라스틱 섬의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Q. 지구촌 환경 변화의 주범으로 폐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기후 위기 시대, 탈탄소사회로 가기 위해 2021년부터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금지’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세’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더 나아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차피 안 돼!’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해결책 모색에 나설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동향을 접하고, 우리 사회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 전반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한 세계’ 활동 사례 2

[키리바시 대통령의 호소] “기후 변화, 작은 섬나라들에 생존문제입니다”

태평양 적도 날짜변경선 부근에 있는 인구 10만5000여명의 키리바시는 국토 대부분이 평균 해발고도 2m의 작은 산호섬들로 이뤄져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특히 취약한 나라로 꼽힌다. 2003년부터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아노테 통(63)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에 2050년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우리라 전망되는 자국의 실상을 알리며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내려고 애써왔다. (중략)



“해안 침식 때문에 마을들이 사라지고, 밀려드는 바닷물로 담수 지역이 오염되고, 농작물 생산에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해수면이 상승하더라도 계속 우리 섬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모든 섬들을 다 구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지원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섬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편으로 국민들 일부가 이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나는 우리 국민이 ‘기후 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격이 내려가는 것이고, 존엄성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중략) ‘존엄한 이주’는 우리 국민이 교육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시민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한겨레, 2015. 7. 21 인터뷰 기사에서 발췌)

읽기 자료 “기후 변화, 작은 섬나라에서는 생존 문제입니다”라는 키리바시 대통령의 호소가 담긴 2015년 인터뷰 기사를 함께 읽고 생각해 봅시다.

Q. 대한민국은 2019년 기준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과 키리바시에서의 삶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Q. 한국에 사는 청소년으로서 키리바시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 내가 키리바시 국민이라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나요?(모듬 내에서 역할을 나누어 대화를 해 보세요.)

•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답이다

문제를 인식했다면 대안을 모색하는 수업도 필요하죠. 다양한 환경단체,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강연 및 자료 영상을 많이 제작해 게시하고 있어요. 5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20분 정도의 영상을 골라 강의를 다함께 듣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사회가 급변하고 많은 자료가 쏟아지고 있어서, 지난 시기 수업에 활용한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것은 철 지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수업한 독서 활용 수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합사회를 가르치면서 일 년 내내 《통합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란 책의 21가지 주제 글을 함께 읽고, 핵심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지도했어요. 그 중 기후 위기와 우리 사회의 전환에 관한 글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답이다'와 '에너지 다양화 시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를 학생들과 함께 읽었어요.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 신기후 체제, 탈탄소 사회, 취약계층과 기후 복지 등을 다루고 있어서, 기후 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변화와 탄소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야 함을 깨닫게 되지요. 더 나아가 에너지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 민주주의를 이뤄 나가야 함을 배우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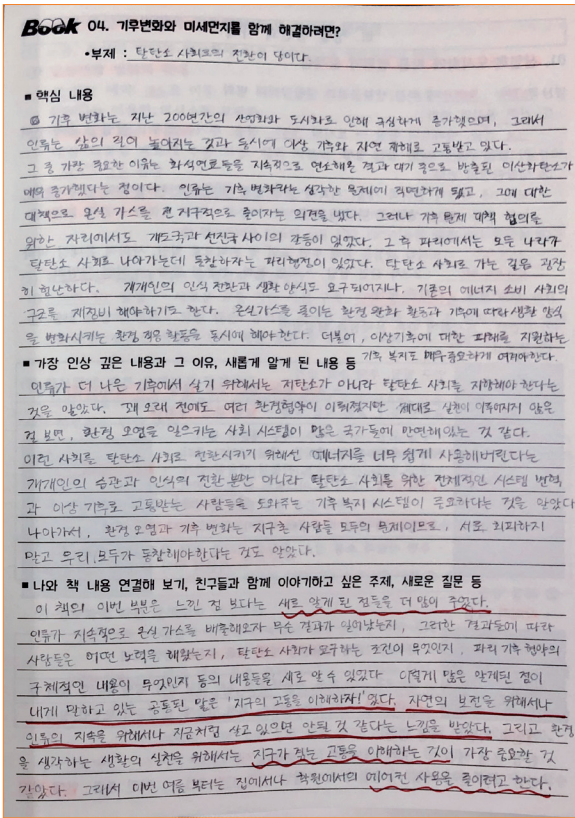
글을 읽고 '생각 노트'에 자신의 생각을 쓰도록 지도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나와 책 내용 연결하기'입니다. 국제적, 사회적 이슈를 자신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꾸준히 생각하는 연습을 하도록 해요.



<'생각 노트'의 글쓰기 구성>

1. 이 글의 핵심 질문은?
2.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세요.
3. 가장 인상 깊은 내용과 그 이유는?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4. 나와 책 내용 연결해 보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새로운 질문 등





주제별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생각노트>

서울 성남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느낀 점을 살짝 들어볼게요.



인류가 더 나은 기후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탄소가 아니라 탄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꽤 오래전에도 여러 환경협약이 이뤄졌지만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회시스템이 많은 국가에 만연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회를 탄탄소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너무 쉽게 사용해 버리는 개개인의 습관과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탄탄소 사회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와 이상기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후복지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아가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는 지구촌 사람들 모두의 문제이므로, 서로 회피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고, 나의 꿈은 신재생에너지 환경 공학자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지구온난화의 무서움을 깨달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꿈을 이루어서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연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이다. 꿈을 이루기 전에도 환경 캠페인, 환경에 관한 뉴스, 서적 등을 읽으며 더 많은 지식을 얻고 각 나라의 생각, 기술력 등도 조사해 보고 싶다. 나는 나중에 커서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을 올려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이바지하는 에너지 환경 공학자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다.

• 활동 수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계' 꿈꾸기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탈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학생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퀴즈 수업과 보드게임 수업을 해 보았어요. 세계지리 수업에서 기후 단원, 에너지 단원을 모두 배우고 나서 4인 1조로 '에너지 퀴즈대회' 활동 수업을 진행했어요. 모둠별로 참여하니 학생들도 모른다고 움츠리지 않고 협력하며 하나라도 더 맞히려고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고, 앞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모두가 집중해서 신나게 참여했습니다.

'난이도 1.0 화력발전 영역' → '난이도 1.5 수력발전 영역' → '난이도 2.0 원자력 발전 영역' → '난이도 2.5 신재생에너지 영역'으로 구성해 난이도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했더니, 뒤로 갈수록 점수가 높아져 더 활기찬 수업이 되었어요. 지금 문제를 다시 구성한다면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해 문제 영역을 달리 구성할 것 같아요. 다음은 예시이므로 사회 변화에 맞춰 적절한 내용과 문항 수로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마지막 뒤집기 코너로 3×3 블락빙고를 넣었어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20개 정도의 단어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9개 단어를 골라 빙고칸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죠. 3단계까지의 점수 상황을 보고 점수 역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점수를 제시하면 더 재밌어요. 한 문항을 맞힐 때마다 돌아다니며 도장을 찍어줘는데, 끝날 때까지 흥미진진했어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퀴즈대회] 문제 예시

<1단계> 기후 위기 영역 (각 1점)

1.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온도를 몇 도 이내로 억제해야 하나? 1.5°C
2. 기후 변화의 주범을 ‘인간’으로 지목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 보고서를 발표한 유엔 산하 기구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3. 이것은 해양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해저의 0.2%에 불과하지만 전 해양 생물의 25%가 서식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이것은? 산호(초)
4. 지구온난화로 10년 새 전 세계 산호초의 14%가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온 상승에 따른 ○○ 현상이 산호초 감소의 가장 큰 이유다. ○○ 현상은? 백화 현상
5. ...

<2단계> 탄소 중립 영역 (각 2점)

8. 영국의 The Economist지의 표지 제목에 ‘○○을 역사로 만들 때가 됐다’가 등장했다. ○○에 들어갈 자원은? 석탄
9. 한국은 석탄발전소 등 화석 에너지에 기반해 향후 경제성이 떨어지는 ○○자산의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다. 시장이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가치가 크게 떨어져 수익이 나지 않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험이 있는 자산을 무엇이라고 하나? 좌초자산
10.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넷-제로(Net-Zero)'라고도 하는 이것은? 탄소중립
11. 도시를 ○○분 생활권으로 조직해 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 세계 여러 도시가 채택한 정책으로, 2020년 파리 시장에 당선된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도 공약으로 내세운 이 정책은? 15분 도시
12. ...

<3단계> 에너지 전환과 기후 행동 영역 (각 3점)

15. 2018년,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석탄발전 없이 사흘을 지낸 이 나라는? 영국
16. 독일 베를린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 난방 설비를 ○○ 에너지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다. ○○에 들어갈 단어는? 석유→재생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퀴즈대회] 문제 예시(계속)

01
•
02
•
03

17. 육식 소비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가축이 발생시키는 이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에 80배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다. 이 가스는? 메탄
18.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치즈. 이들 식품을 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소고기 - 양고기 - 치즈 - 돼지고기 - 닭고기
19. ...

<3 × 3 블랙빙고> 20개의 단어 중 9개의 단어 맞추기
(먼저 모두 맞히면 빙고! +○점)

기후 위기, 탄소중립, RE100, ESG 경영, 기후정의, 전기자동차, 에너지 전환, 스마트그리드, 풍력, 태양광, 수소경제, 그린뉴딜, 포스트 코로나, 기후행동,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제로 하우스, 생태도시, 15분 도시, 지역 순환경제, SDGs...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20개 단어 제시)

요. 이런 퀴즈 수업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다 함께 즐기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보드게임도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이에요. '태양의 학교'라는 단체에서 '착한 에너지 탐험' 보드게임을 대여해 주어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을 했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이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에너지 교육용 보드게임을 제작해 판매했고요,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에서는 다양한 보드게임 등 환경교육 교구를 대여해 주고 있으므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스스로 보드게임을 만들어 보게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기후 위기 교육, 생태 전환 교육을 했다면 마무리 수업으로 '미래 마인드 맵 그리기' 활동을 추천합니다. 저는 세계지리 수업을 통해 기후,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 도시와 인구, 환경 갈등 등을 다루고 단원 마무리 활동으로 환경다큐를 보여 주며 마인드맵을 그리도록 했어요.

<그림 2-4> '에너지 보드게임' 활동 자료



제가 고른 영상은 환경 다큐 '내일'이었는데요. 비록 코믹액션 영화는 아니지만, 수개월 동안 배워 온 지구촌 문제의 대안 모색이 담긴 영화라서 관심 있게 보는 학생이 많았어요. 다큐를 시청한 후에는 '미래'라는 키워드로 마인드맵을 그리도록 했어요. 에너지, 경제, 교통, 먹거리, 교육, 이렇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하고 미래를 나타내보라고 했어요. 모든 학생이 즐겁고도 진지하게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에 참여해 주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물어가며 마인드맵을 완성했어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읽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마무리 수업으로 '내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추천해요.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세계 여러 생태도시나 에너지 전환 마을을 소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이에요. 학생들에게 '태양의 도시, 자전거의 나라, 세계의 생태도시, 한국의 에너지 전환 마을' 등의 검색어를 주고 조사해 보도록 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서울 성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후기를 살짝 들여볼게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수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독일의 운데와 보봉 마을,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는 영국의 토트네스와 베드제드 마을 그리고 실험이 멈추지 않는 한국의 성대골 마을을 사례로 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구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차 없는 거리, 보행자에게 친절한 도시, 전기자동차의 보편화 등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았다. 미래에는 패시브 하우스나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들을 통해 보다 행복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다.



“ ‘내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수업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나라에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일본의 ‘비전력공방’ 마을에서도 에너지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에 관심이 많은 나는 이 마을에 대해서 더 조사해 보았다. 이 마을에서는 비전력 제습기, 비전력 정수기, 태양열 목욕탕 등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현명한 시민이 되어야 비로소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느꼈다.

○ [사례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해 극복해야 할 편견과 오해들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 것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예요. SDGs의 마지막 17번째 항목은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16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겠지요. MDGs(새천년개발목표) 시대에서 SDGs 시대로 오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일방적인 원조의 시대가 끝나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침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알던 선진국이 모든 분야에서 선진화된 혹은 개발된 나라(developed country)는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국가 구분의 개념은 예전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잘사는 선진국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원조해 줘야 한다는 구조를 벗어나,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가 지구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수업에 담고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국제적인 개발협력에 대한 내용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통합사회 <Ⅷ. 세계화와 평화> 단원에서 국제적인 갈등과 협력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

고,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단원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 전 지구적인 노력에 대해서 배우고요. 세계지리의 교과서 마지막 단원인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에서는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이야기해요. 물론 지역지리 단원에서는 주요 개발도상국이 당면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종종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행지리 과목에도 <Ⅳ.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단원에 봉사 여행을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세계의 여러 지역을 다루고 비정부기구나 국제협력단을 통한 봉사와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어, 인류의 공존 노력에 공감하며 그 실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요.

<표 2-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주제' 관련 단원

과목	대단원	중단원	학습 주제
통합 사회	Ⅷ. 세계화와 평화	2. 국제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	01. 국제 갈등과 협력 및 국제사회의 행위 주제 02.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3. 남북 분단 및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국제 평화 기여 방안	01.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분석 02. 우리나라와 국제 평화
세계 지리	Ⅸ.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3. 지구촌의 미래와 우리의 삶	01. 지구촌의 미래 02.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Ⅷ. 평화와 공존의 세계	3.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노력들
여행 지리	Ⅳ.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2. 봉사 여행	01. 다양한 봉사 여행 02. 지역과 여행자에게 주는 긍정적 변화

학생들과 글로벌한 지속가능발전과 국제개발 부분을 공부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들이에요. 세계지리 지역 단원을 공부할 때마다 느끼지만, 이른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물론이고,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정말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해 보면, 제가 교육받아온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프리카를 하나의 국가와 지역처럼 생각하고,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의 여러 개발도상국(저개발국가)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잘사는 선진국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원조해 주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빈곤 포르노그래피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선진국은 강자로서 호의를 베풀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약자로서 주는 것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상황과 입장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부분에 자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인식해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약자로 생각하기도 해요. 여기서 다소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잘사는 선진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러움과 동시에 일종의 콤플렉스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우리보다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보여주기도 해요.

• 한 학기, 1인 1국가 지정 세계지리 수업

2019학년도부터 세계지리 수업에서는 1인 1국가를 지정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마다 한 학기 동안 1개 국가의 대표가 되어서 세계지리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지역별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추첨을 통해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교실 좌석 배치도 세계지도 상에서 인접한 국가들끼리 모둠을 이룰 수 있도록 했어요. 한 학기 동안 자신에게 할당된 국가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수업 시간에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주요 이슈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어요.

특히 수업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국제 이슈에 바로 대응하기가 좋았어요. "지

난주에 너희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될 것 같니?", "이번에 한-ASEAN 정상회의에 초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논의하게 될까?", "너희 두 나라는 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 같아?", "이번에 A국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등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져서 모둠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이 담당할 국가와 수업 시간에 종종 다뤄진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19학년도 세계지리 3개 반 수업 좌석 배치도입니다. 세계지도를 떠올려 보면 인접한 국가끼리 모둠을 구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slavery foot print(노예발자국지수)' 결과 예시

`slavery foot print' 사이트에서 먹거리, 전자제품, 옷가지, 스포츠 활동 등의 일상적인 내용을 체크하면 노예발자국 지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상의 이면에 있는 세계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 Slavery foot print 사이트 통해서 우리의 삶 성찰하기

먹거리 관련 수업을 하며 학생들에게 추천했던 책, 《식탁 위의 세상》 중에 소개된 'slavery foot print(노예발자국)' 사이트의 설문을 작성해 보고, 소감을 써 보는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의 노예제도도 없지만, 노예와 같은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지구촌 여러 곳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줄 안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설문을 진행하고 나오는 노예 숫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나의 일상적인 삶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윤리적인 소비와 친환경적인 생활 패턴 등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희소 광물, 주얼리로 소비되는 귀금속 광산 등을 둘러싼 생태 환경의 파괴, 각종 분쟁,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이 발생하는 구조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막연한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일상적인 소비와 경제 활동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것도 현대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 등의 단어는 교과서에 등장하지만 학생들에게 크게 와 닿지는 않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학교 차원에서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던 '1학년 1 해외 아동 결연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해외 아동 후원을 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주제를 수업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에는 후원하는 학생의 정보가 담긴 패널이 게시되어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천 원씩 모아서 후원하는 돈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 아이가 사는 지역에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순서로 지정될까요?”

“이 아이는 자신의 사진이 여러분의 교실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교실에 걸려 있는 후원아동 패널에서 시작된 질문은 '누가 누구를 돕는가? 왜 도와야 하는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등의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인권 문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dignity) 문제 등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인권기관 활동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내용을 글로 작성해 학교 내에 발간하는 잡지에 싣기도 했습니다.

국가 간의 원조는 모둠별 토론 과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여러분은 1년 수입에서 얼마 정도를 가난한 나라를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국가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나요? 혹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1인 1국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온 나라인데, 왜 여전히 어려운 것일까요? 왜 달라지지 않은 것일까요?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도와줘야 할까요?”



수업에서 국제개발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경험한 것은 교실이 우리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도와주냐는 의견, 해당 국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서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의견의 비율도 학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당시의 여론 조사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교실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이 하는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협력해야 할 것들을 수업에서 조금이라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G7 선진국 위주로 세계의 문제를 논의하던 시대를 지나 G20이 모여서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위상도 크게 변화되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러한 요구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세계를 무대로 일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국제개발협력 관련 내용의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 내용은 교과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도 출제하지 않고 수업 자체를 생략하고 학년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기말 시험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3.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우리 함께해요

수업 사례를 통해 만난 '세계시민교육'이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진행하는 수업에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사례를 하나 더 제시하며 나와 사회, 나와 세계를 연결하도록 이끄는 것으로부터 세계시민교육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Q 특히 지금 시대에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황: 급변하는 시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우리는 4차 산업 혁명, 기후 위기,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세계화'의 정도를 뛰어넘는 전 지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은 세계시민교육이 말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살아야 할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권, 정의, 안전, 지속가능성)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학교가 해온 역할들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어요.

윤: 맞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시대를 경험하면서 세 가지 교육적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상호의존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서로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죠. 둘째, 감염병의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 생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인간을 넘어 비인간과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셋째, 삶의 터전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감염병은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대안과 해법은 지역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해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공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배려하고 책임을 나누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Q 세계시민교육을 어렵게 느끼는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20년 말 기준으로 2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총인구의 5% 이상으로, 한국은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 국가입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례도 늘어 한 해 결혼하는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결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해요. 우리 교육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세계시민교육이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함께해 주세요.

황: 우리는 자랄 때 세계시민이 되도록 교육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렵지 않은 것이 세계시민교육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펴본다면, 코로나19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다른 나라 아이들이 이해될 거라고 봐요. 미세먼지로 힘든 날이면, 석탄과 겨울철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나라 사람들과 기후 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동식물,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주민의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가정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학하는 아이를 보면서 옆 반의 탈북학생의 삶, 이주민과 난민 자녀들의 학교 문제, 그들의 고국에서 일어나는 내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급여 대상자와 저소득층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 대한 학교 행정을 경험하면서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형성되는 미묘한 긴장과 어려움을 느꼈다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하는 방법과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작하면 교사도 학생도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어요. 선생님, 우리 함께해요.

3.

지역이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세계시민교육

김다영

(경기 안산 성포고등학교)



3.1.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만났어요

3.2. 세계시민교육,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3.3. 세계시민교육과 연결성

[사례 1] 영상을 통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하기

[사례 2] 모둠 활동을 통한 나와 지역사회 연결하기

3.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

[사례 1]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

[사례 2] 인권 시 작성하고 낭송하기

3.5.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사례 1] 영상을 통한 다문화교육

[사례 2] 포토스탠딩을 통한 다문화교육

3.6. 실천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사례 1] 100원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사례 2] SDGs 이해하고 실천하기

3.7. 글을 마치며

3.1.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만났어요

선생님들! 첫 학교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그 느낌! '어떤 학교에서 교사로서 생활을 시작하게 될까?' 하는 가슴 뛰었던 그 시간 말이에요. 저는 첫 학교에 방문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다 보니 정문이 어디인지 몰라서 결국 한 바퀴를 돌아 뒷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큰 게시판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중학교 몽골과의 ASPnet'이었어요. 몽골의 어느 중학교와 진행하는 국제교류사업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재직하게 된 중학교가 유네스코학교여서 있었던 게시판이었어요. 웬지 외국학교와 교류하는 게 멋지다는 생각만으로 처음 만난 교장 선생님께 "저 유네스코학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약간은 어이없고 당돌한 제 모습이 떠올라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할 세계시민교육과 만난 순간이었어요. 저에게 국제이해교육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시민교육이 아닌 국제이해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사회교사로서 수업 시간을 위해 교과서의 내용만을 준비하고 가르치기에 바빴던 저였거든요. 교수학습 방법도 능숙하지 못했고, 교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국제이해교육? 국제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

육인가?'라는 생각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걸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이었어요. 운 좋게도 인문사회부의 국제교류 업무를 맡게 되면서 국제이해교육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1996년 '들로르 보고서(Delor Report)'로 알려진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Learning: the Treasure Within)》를 읽었어요. 제목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평생학습의 가능성을 인간이 살아가면서 발견하지 못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숨겨진 보물로 비유하면서, 어떤 교육을 선택하느냐가 곧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교육은 평생 이루어지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보고서에는 교육을 위한 네 가지 학습 유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 알기 위한 배움(Learning to know)
- 할 수 있기 위한 배움(Learning to do)
- 다른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한 배움(Learning to live together, learning to live with others)
- 존재하기 위한 배움(Learning to be)



위의 네 기둥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가르치는 교과를 분석하며 위의 내용과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2000년 초반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이민자의 증가와 2005년 하인즈 워드 사건¹⁾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두게 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1) 한국계 미국인 하인즈 워드가 2005년 미국 슈퍼볼에서 MVP를 받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높아지며 본격적인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함.

다문화교육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인데요, 안산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다들 안산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계획을 기반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국제이해교육이라는 말보다 다문화교육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었어요. 좋든 싫든 어느 순간 '국제이해교육이냐? 다문화교육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저는 물론이고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5년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면서 교육청을 통해 세계시민 교육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국제이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으로 비중의 변화는 있었지만, 이 모든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는 의미, 내용, 범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들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정보와 시간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한데, 맥락을 건너뛸 채 '~교육 선도학교', '~교육 연구학교' 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교육의 목적과 의미가 불분명한 채로 무언가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많은 결과를 내놓지만 무언가 맥락이 빠진 것 같은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저는 어떤 교육이든지 교과 활동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나름의 체계를 세웠어요. 첫째,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수업은 실제 생활과 연계되어야 하며 배운 지식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우리는 항상 연결된 공동체로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나의 작은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지역사회에 관한 내용이나 그 당시 쟁점이 된 기사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준비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주제로 토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한 해에 1~2개 정도의 주제로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꽤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만들어졌어요.

가끔 연구회 선생님들이나 친한 선생님들이 묻곤 해요. "다영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저는 "음... 저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미시적으로는 내가 사는 곳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이고, 거시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지구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지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해야 하는데 언어장벽이 생기고,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갈등도 생기지요. 그러나 그런 문제를 서로 조율하면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며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매우 실천적인 교육이 아닐까요?"라고 대답하곤 해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우리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면서 더 따뜻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세계시민교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교육이고 또는 현재 하고 있으신 교육일 수도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계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시더라도 관심을 두게 되는 순간, "그래! 내가 하는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구나!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겠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했던 세계시민교육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들만의 세계시민교육을 만들어 볼까요?

3.2. 세계시민교육,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세계시민교육을 이야기할 때 처음 고민하는 문제가 '도대체 세계시민이 뭐예요?'라는 질문이에요. 여전히 전 세계가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이라는 말은 허울 좋은 말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시민교육에서 '시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시민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통합사회에서 시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이바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참여하는 시민은 그 공동체에 참여한 다른 시민과 연대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업 구성을 할 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사는 환경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요.

다음은 수업 방법 고민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은 영 아니었던 수업이 있는가 하면, 그다지 준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질문 하나로 학생들과 교감과 공감이 잘 이루어져서 50분의 수업이 금방 끝났던 수업도 있어요. 어떤 수업이었던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준 수업의 경우는 뿌듯하고 힘이 솟지 않으셨나요? 물론 학생들이 자신이 의도한 교육 목적과 다른 것을 배웠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에게 의미 있는 수업과 학생에게 의미 있는 수업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곤 해요.

학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즐겁고 재미있는 요소가 주변에 널려 있고, 게다가 그 재미있는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사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에게는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저 그런 수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수업 방법을 선택할 때 3가지를 고민해요.



- 학생들이 도달했으면 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 어떤 학습 내용을 사용할까?
-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학생들은 교과 수업에 관한 내용보다도 교사의 생각과 교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더 눈빛을 빛내며 집중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다양성 수업 시간에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의 중요성'과 관련한 수업 내용보다는 교사의 여행기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또한 교사의 강의보다는 자신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자신들의 활동에 더 집중하고 즐거워하곤 했어요. 그래서 수업 방법을 구성할 때에는 교육과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와 방식에도 더 고민하곤 해요. 열심히 준비한 연구수업보다도 '그냥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시도에 학생들이 더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에서도 인권, 환경, 빈곤, 평화, 문화다양성 등의 주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교과 수업에서 그러한 요소가 함께 가미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고, 학생이 영상, 게임, 글쓰기 활동 등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어요. 수업을 위한 자료도 학생들이 사는 지역의 현황과 문제로 구성하여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지역의 문제가 전 지구적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으며, 1학년 통합사회를 9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교과서만 해도 9년 동안 3번 바뀌었어요. 그래서인지 1학년 사회에 애정이 무척이나 많답니다. 누군가가 보면 '어떻게 9년을 가르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과서가 3번 바뀌면서 활동의 내용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 사회문제탐구도 함께 가르치게 되었는데, 1학년 사회 수업 시간의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세계시민교육을 대하는 저만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소개해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의 주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학생들의 참여 모습과 반응, 수업에 대한 저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사례 1] 영상을 통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하기

〈Ⅱ. 자연환경과 인간〉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의 삶과 자연환경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습하는 단원이예요. 이 단원에서는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다양한 환경 문제의 양상을 이해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의 통합적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환경 문제는 국내 문제이자, 세계 문제로 연결되어 있고, 자신과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과 세계를 공간적으로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시간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단원에서 스티브 커츠(Steve Cutts)의 'Man'과 무한도전에서 촬영한 '나비효과'라는 2가지 영상을 많이 사용하곤 해요.

스티브 커츠의 'Man'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학습한 후에 보게 되는 영상인데, 인간의 욕망과 오만으로 지구가 위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3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설명해 줘요. 영상을 본 후 학생들과 영상을 통해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작성하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인간의 무자비한 모습, 환경오염의 심각성, '나 하나쯤이야 뭘'에서 '나 하나쯤이라도 변해야겠다'라는 의지 등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무한도전의 '나비효과'예요. 나비효과는 나비의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영상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의 무심코 한 행동, 예를 들면 냉장고 문을 오랫동안 열어놓고 물건을 찾는 일, 양치할 때 물을 틀어 놓는 행동이 다른 공간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 [사례 2] 모둠 활동을 통한 나와 지역사회 연결하기

통합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단원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는 수업이예요. 이 단원에서 학

<표 3-2> <Ⅲ. 생활공간과 사회> 수업 계획 예시

영역	Ⅲ. 생활공간과 사회 - 지역의 공간 변화
내용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지역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학습하는 단원이다.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심을 두고, 지역의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아본다.
교수 학습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시 수업의 마지막에 학생들이 사는 지역의 변화와 관련 자료를 3가지 이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조별 활동으로, 24~25명인 한 학급을 4~5명씩 6개 조로 나눈다. ③ 조별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모습과 원인, 세계화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토의하고 전지에 작성한다. ④ 모둠별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유의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부분의 학생이 준비를 잘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수 있기에 조별로 스마트폰을 하나씩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들이 찾아온 지역 자료의 경우 인터넷에 올라 있는 자료가 대부분이라 인쇄해 온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③ 검색엔진보다는 지역 시청이나 역사관 사이트 등을 활용하면 좀더 쉽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④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지역 공간 변화의 모습을 정리하고, 이를 전 세계적 현상과 연결하는 조력자로서 학생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답하고, 활동에 용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시민 교육과의 연결성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지역의 공간 변화를 세계화의 모습과 연결한다. 구체적으로 세계화의 이슈(상품, 노동, 자본의 이동 등)가 우리 지역의 공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연결하며 나와 지역,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생들은 교통과 통신의 변화가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Ⅲ. 생활공간과 사회>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확장하여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아요.

처음 수업을 구성했을 때는 B4 종이 한 장에 인구, 산업, 경제, 환경적 변화 등 4칸을 만들어 이를 정리하고, TV 화면으로 연결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했어요. 활동지가 너무 작다 보니 학생들이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다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래서 활동지의 크기를 A1으로 바꿔서 사용하였더니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수업 내용을 표현할 수 있었고, 학생들 간 교류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업 이후 학생들은 '요새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얼마 전 뉴스에서 ○○것을 봤어요', '○○나라에서 ○○일이 일어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며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지역의 변화와 세계의 연결성을 수업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내가 사는 곳에서 일하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사람이 있다는 점이 놀랍다'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추상적으로 이해가 되었던 지역과 세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답변도 들을 수 있었어요.

이 같은 학생들의 작은 변화가 바로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 주는 세계시민교육 간 연결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변화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지역적 변화와 세계적 변화의 연결성과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교통·통신의 발달이 전 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상품·노동력·자본의 수입과 수출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토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다고 봐요.

지역의 변화와 관련한 내용을 이후 통합사회 <Ⅳ. 인권보장과 헌법>을 학습하면서 실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수업과 연결할 수 있어요.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지구적 현상(예를 들어 상품과 노동의 이동 등)과 연결하면서 세계시민으로 해야 할 역할이나 행동과 연계할 수 있어요.

실제 수업을 하다 보면 생활공간의 변화를 주제로 공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는 순간이 나타나곤 해요. 이런 순간에 교사는 학생들의 관심을 촉진하는 조력자로서 학생이 관심 두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친구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준다거나, 학생들과 함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3.4. 세계시민교육과 인권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은 누구일까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던진 질문은 아니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던진 질문이었어요. 학생들은 '세계적인 시각을 갖는 시민', '민주시민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시민', '세계적인 이슈에 관심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 '제가 바로 세계시민이죠?' 등 다양한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러한 질문에 이어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전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우해야 해요' 등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라는 공통적인 대답을 해주었어요. 특히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므로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며, 동등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해요."라고 대답한 친구가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세계시민교육에서 '인권'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권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인권의 의미, 역사, 범위 등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인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봐요. 인간 존엄의 이해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시민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회 수업은 인권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교과라고 봐요. 교육과정의 내용과 함께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를 다양하게 다뤄봄으로써 학생들은 세계적 인권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찾고 행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는 제3차 유엔총회(1948년 12월 10일)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에요.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격인 문서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

의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인권선언을 학습하면서 세계의 인권 문제(예를 들어 1달러 어린이 근로자 문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문제 등)를 연결함으로써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과 연대를 끌어낼 수도 있어요.

○ [사례 1]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

인간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를 해보았어요. 조별로 학습하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권리가 무엇이며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려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세계인권선언 조문 그 자체를 읽기엔 학생들에게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만화로 읽는 세계인권선언'³⁾을 인쇄해서 사용했어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친구와 토의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학생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는 달랐지만 이러한 협약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재미있었던 점은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선택한 권리가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싫어하면서 그래도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깨달은 지점이었어요.

<표 3-3>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 수업 계획

제목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
영역	IV. 인권보장과 헌법
내용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난 권리를 학습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작성해 본다.
구성 및 교수 학습방법	① 수업은 '따로 또 같이'의 형식으로 미리 세계인권선언 만화카드를 준비하여 조별로 배부한다. ② 조별로 토의하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권리를 선택한다. ③ 선택한 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이를 실천하려는 방안을 작성한다. ④ 친구들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
유의할 점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나 개념을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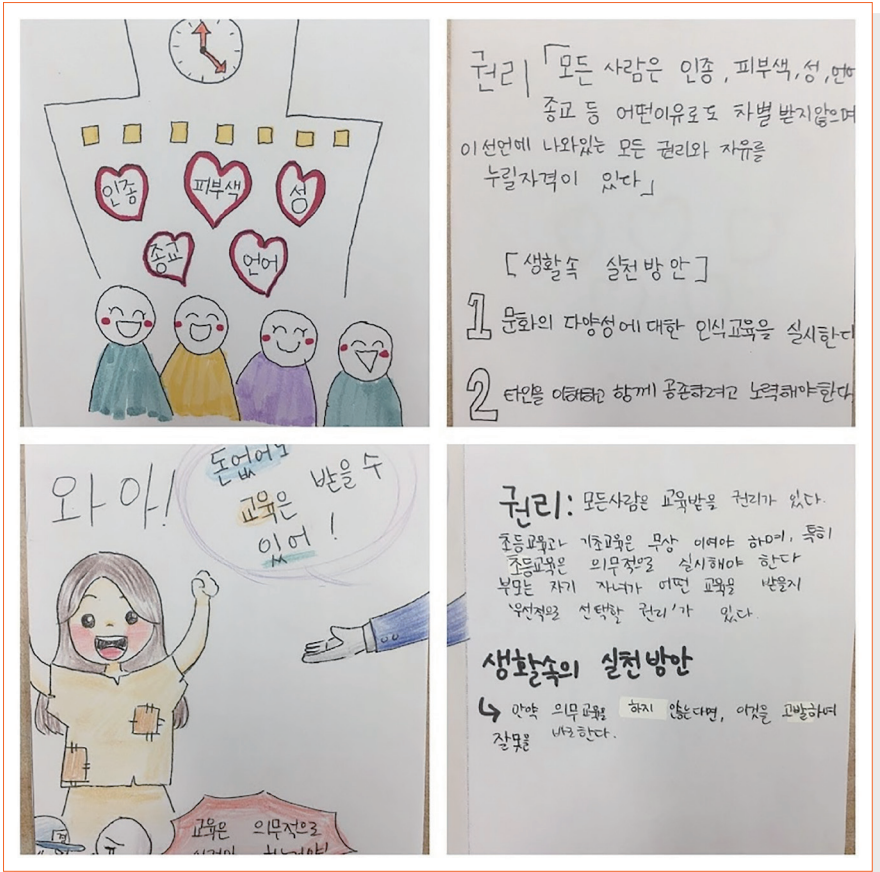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의 '교재 · 교육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그림 3-2> '세계인권선언 그림 카드 만들기' 활동 사례

01

02

03



○ [사례 2] 인권 시 작성하고 낭송하기

다음은 인권 시 작성과 낭송 수업이에요. 학생들은 누군가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말('이 순간은 바로 네가 주인공이다', '발표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등)와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경음악을 준비하여 발표하는 친구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친구들도 막상 발표를 할 때는 손짓, 눈짓 등으로 표현하며 말하는 모습이 예뻐어요. 학생들로부터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는 뭐예요?", "선생님도 낭송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기도 하며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유치원 다녔을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너희들의 활동을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렸단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너희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부모님들은 궁금하지만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시를 낭송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해하실까?"라고요. 몇몇 학생은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곤 했는데요, 활동도 중요하지만, 활동 모습을 나누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표 3-4> '인권 시 작성하고 낭송하기' 수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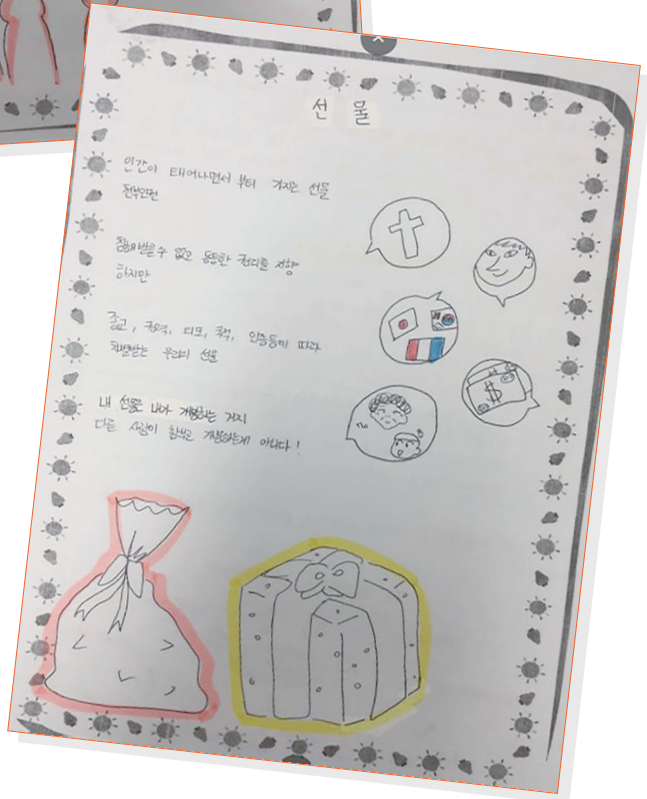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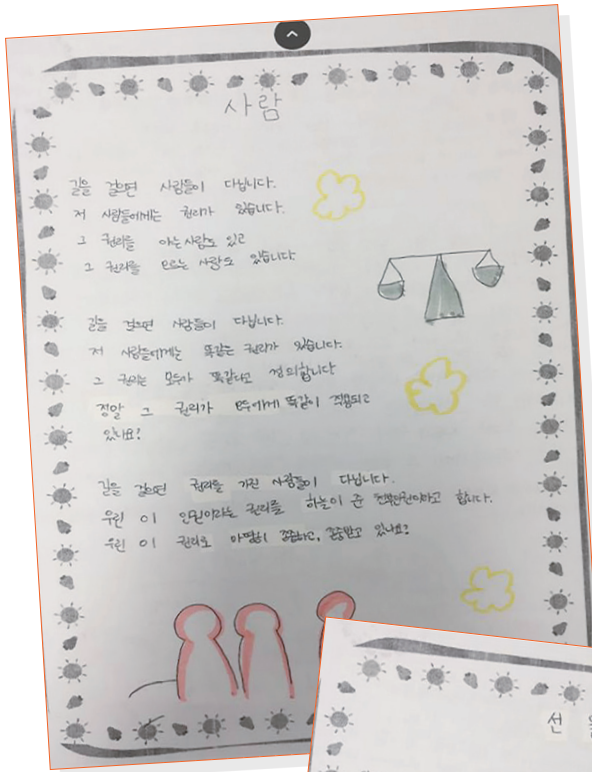
제목	인권 시 작성하고 낭송하기
영역	IV. 인권보장과 헌법
내용	인권의 의미와 연계하여 '인권 시'를 작성하고 낭독하게 함으로써 인권의 의미를 내면화하기
구성 및 교수 학습방법	① 인권의 기본적인 학습이 이루어진 후 인권 시를 작성하게 한다. ② 작성한 시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유의할 점	① 인권 시를 작성하며 인권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이 낭송할 때 음악을 틀어줄 수 있도록 미리 배경음악을 준비한다. ③ 만약 학생들이 동의한다면 자신이 작성한 인권 시를 개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고 #인권 #함께해요 등의 해시태그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림 3-3> '인권 시 작성하고 낭송하기' 활동 사례

01

02

03



3.5.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분야라고 생각해요. 학교 현장에서는 2005년 하인즈 워드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감수성교육 등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인천에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들어왔어요. 한편으로는 학교 현장, 특히 중·고등학교에선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세계시민교육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솔직히 교사로서는 둘 다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죠.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부터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함께 공적개발원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세계의 빈곤 해소, 지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세계시민교육도 강조되고 있어요.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 계층 등 한 사회 내의 다양한 차이가 차별이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두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사회 변혁 운동이라고 말하죠. 이에 비해 세계시민교육은 세계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세계시민교육은 국가 내 문제와 갈등보다는 국가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구적 협력과 연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국경을 넘어 세계인, 공동체의 시각으로 세계 공동체를 이루어 전 지구적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문제의 이해를 높이며, 빈곤, 환경, 인권 문제의 공동체적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교육이냐, 세계시민교육이냐 하는 대립적 시각을 갖기보다는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서로 보완하는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공존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교육이 한 국가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면 이것

이 한 단계 나아가 국가 단위를 초월해 세계 수준으로 확장했을 때는 '함께 살아가는 교육'으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단위에서 전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문화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교육으로 어느 교육을 상위에 두고 혹은 두 교육을 포섭과 포괄한다는 태도로 인식하기보다는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반드시 두루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통합사회 단원 중 <Ⅷ. 문화와 다양성> - '4. 다문화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긍정적·부정적 모습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태도와 자질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학교가 있는 안산은 이 단원과 꼭 들어맞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안산 내에서도 다문화교육의 온도 차는 커요.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사들의 체감도나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최근 들어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긴 했지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측면의 내용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편견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태도와 감성을 길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 [사례 1] 영상을 통한 다문화교육

처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알고 있습니까?(원제: DNA JOURNEY)'라는 영상을 활용한 수업이에요. 다양한 종교, 민족, 인종의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5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어요. 전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차별과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영상은 짧았지만 그 떨림과 감동은 오래갔답니다.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이야기들 공유해주었는데요, 여기에도 소개할게요.



- A**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국적과 문화의 DNA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맞고 틀렸다고 정의할 수 없으므로 서로 다양한 문화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절대 자신의 문화만을 강조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B** 과연 내가 한국인일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도 나처럼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으면서 한국에 사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한국인일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도 존중하며, 그 사람도 같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C** 주변국을 경계하고 증오하기보다는 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민족임을 인정하고 서로서로 미워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 D**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거나 과거에 얽혀 있던 나라를 그냥 싫어했는데 위 영상을 보니 내가 그 나라 민족의 피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싫어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싫어하는 걸 수도 있겠다고 느꼈다. 다문화사회를 차별하는 게 아닌 우리 모두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 우리는 결국 다 같은 사람임을 알아야 할 것 같다.



○ [사례 2] 포토스탠딩을 통한 다문화교육

다음은 잡지를 활용한 포토스탠딩이라는 수업사례예요. 포토스탠딩 수업은 어떤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문화교육 수업 이외에도 인권,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 수업의 마무리 활동에 사용하면 학생들이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와 자세'라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표현해 보게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가장 까불었던 친구가 발표하러 나왔는데, 제목이 '높은 시선, 넓은 시야'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므로 어떤 문제나 갈등도 해결하기 쉽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수업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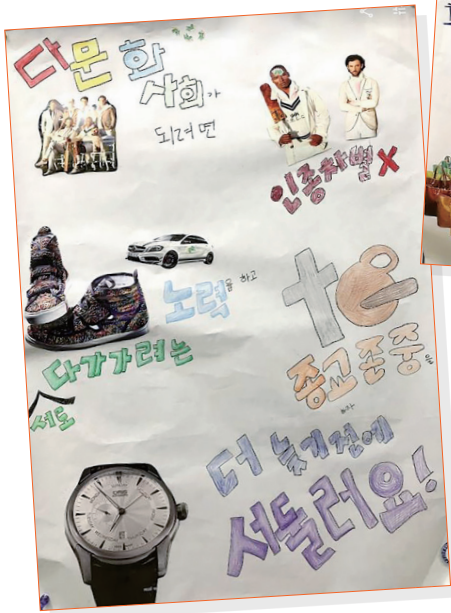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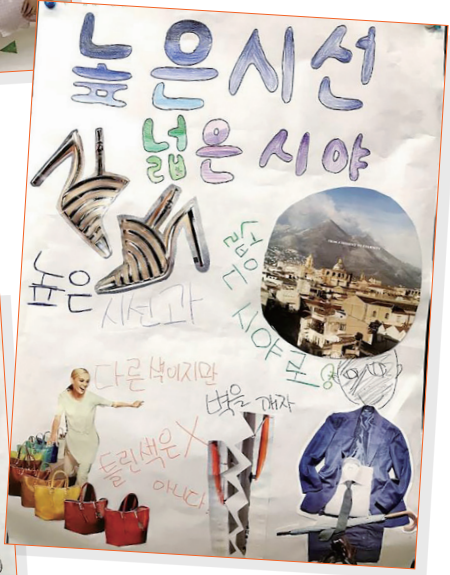
간에 방해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자는 학생이었지만 발표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학생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구나'라는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항상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또한 모둠별로 잡지 사진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치나 태도를 연결하면서 친구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었고, 사진 속 인물의 표정이나 소품 등을 색다르게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다고 했어요. 학기 말 수업 평가를 할 때 '다음 해에 반드시 해보면 좋은 수업 1위', '가장 재미있고, 즐거웠던 수업'은 항상 '포토스탠딩'이라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표 3-5> '포토스탠딩을 통한 다문화교육' 수업 계획

제목	포토스탠딩 기법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영역	VII. 문화와 다양성
내용	다문화사회의 기본적인 이해(다문화사회의 장단점, 다문화사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잡지를 활용하여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 덕목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구성 및 교수 학습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사는 수업 전에 모둠별로 나눠줄 전지 한 장, 포스트잇, 패션 잡지, 풀, 가위 등을 준비한다. ※ 패션 잡지는 중고 서점에 가면 과일호를 권당 3,000원가량에 구매할 수 있다. ② 수업 시간에 모둠을 나눠 놓고, 모둠당 한 명씩 나와 패션 잡지의 사진을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 모둠별로 4~5장씩 가져가라고 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학생이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다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모둠별로 한 명씩 나와서 교사의 지도로 한 장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③ 모둠별로 학생들에게 포스트잇을 나눠 주고,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태도나 가치를 작성해 보고 모둠별로 분류하면서 의논하게 한다. ④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작성한 다문화사회에서 필요한 태도를 바탕으로 패션 잡지의 인물, 풍경, 소품 등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제작한다. ⑤ 작성한 모둠별 활동지를 교실에 붙이고, 갤러리 워크를 하며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별로 스티커를 2장씩 배부하고, 잘한 작품에 붙이게 하면 서로의 발표에 더 집중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유의할 점	잡지를 한 장씩 교실에 늘어놓을 때 인물의 모습이나 사물 등 교육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4> '포토스탠딩 기법을 활용한 다문화교육' 활동 사례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안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여권 없는 세계여행 다문화거리 오리엔티어링'을 매년 진행하고 있어요. 사실 이걸 지역의 특 수성을 띤 내용이라 일반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이민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 지역의 문화 적 특성을 활용한 수업으로 진행해 봐도 좋을 듯해요.

01
•
02
•
03



'여권 없는 세계여행 다문화거리 오리엔티어링'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

3.6. 실천을 통한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도 기부하세요?" 수업 중 한 학생이 당돌하게 질문했어요. 당돌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그렇게 느껴서예요. 그 당시 수업 주제가 사회 참여와 기부였고, 기부의 의미, 방법, 기부할 때 유의할 점 등에 관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는 '선생님이 기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정작 선생님은 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하라는 거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교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당시 저는 그린피스, 유네스코, 유엔난민기구에 기부하고 있었어요. 세계시민교육을 하는 교사로서 생각만을 가진 채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허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금액을 증가시키면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환경 문제를 논의하면서 매번 급식을 남기는 행동이라든지, 텀블러 대신 종이컵을 마구 쓰는 행동을 한다면 학생들 앞에서 교육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할 때 교과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캠페인이나 사회 참여방법을 연계해 봤어요. 다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의 관점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학생들이 되도록 주도적으로 할 방법과 수업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해요.

이제부터는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실천 사례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

○ [사례 1] 100원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사회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이 <Ⅷ. 세계화와 평화>인데요, 세계시민교육에서 자기 생각과 신념을 실천해볼 수 있는 딱 좋은 시기의 단원이라고 생각해요. 학기말 시험이 끝난 후는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서 학생들과 뭔가 작당(?)을 해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기도요. 어떤 세계적 이슈도 이 단원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세계적 빈곤 문제'와 '기부'라는 주제를 연결하여 학생들과 활동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서 교실에 늘어놓고 판매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 '버리면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기부 물품으로 가져오는 학생들을 보며 난 감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부 물품을 받는 데서 '기부의 의미와 기부 물품, 기부를 받는 사람과 기부를 하는 사람의 관계성 교육이 이루어져야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 해에는 <Ⅵ.사회 정의와 불평등>에도 나오는 롤즈의 무지의 장막에 관한 내용과 연결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기부를 하거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기부의 의미, 기부를 하는 사람과 기부를 받는 사람의 관계 평등성, 나눔의 평등한 마음과 관련해, '세계화'의 과정이 지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구조와 관련해 토의했어요.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의 한 방법으로 기부를 제안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은 기부하는 물건이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지 않으나 좀더 의미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00원 경매' 형식이라는 재미를 가미했더니 학생들이 기부 활동을 즐겁게 준비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기부 활동을 하면서 한국은 6.25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였다는 점, 지금은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그래서 신흥 기부국으로 꾸준히 해외 기부금을 늘리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면 학생들은 놀라워했고, 감동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다만 국가적 기부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국가 중심의 원조가 크며,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은 2011년 2만원, 2015년 32.6만원, 2019년 40.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부 참여율은 낮아지고, 기부자 평균 기부금액은 대체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니, 학생들이 기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부를 해야겠다고 선언하는 학생들도 생기더라고요. 특히 기부 활동 전에는 '성인이 되면 기부를 하겠다', '돈을 벌게 되면 기부를 하겠다'라는 식의 조건을

붙였다면, 100원 경매 기부 활동 이후에는 '어떤 형식이라도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는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나도 언젠가는 기부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기부가 낫설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기부금을 모은 후 학급별로 직접 기부금을 입금해 보게 했고, 입금한 결과를 학급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기부 활동의 투명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세계시민교육에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 문화다양성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마지막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와 참여가 아닐까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 이런 작은 실천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요.

<표 3-6> '100원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수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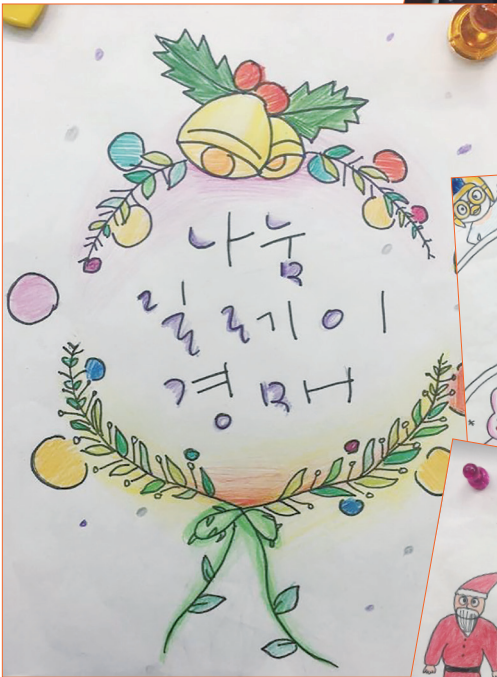
제목	100원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영역	VIII. 세계화와 평화
내용	국제 갈등과 협력을 학습하며, 국제사회의 원조 활동과 기부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실천해 본다.
구성 및 교수 학습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들은 세계화로 발생하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 방식을 학습한다. ② 국제사회의 원조활동과 개인·사회적 차원의 기부를 학습하며 실제 기부 활동을 실천해 본다. ③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100원 경매는 학생들이 물품을 가져와서 경매사를 통해 물건을 팔고, 여기서 얻은 이익금을 기부단체로 보낸다.
	<p>경매 수업의 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부의 의미, 기부 대상 등을 소개 ② 경매사 및 경매준비위원 뽑기 ③ 학급별 경매 물품 준비 ④ 경매일 선정 및 경매 당일 100원 릴레이 경매 ⑤ 학급별 모인 기금을 모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기부 ⑥ 기부금 영수증을 각 학급에 게시
유의할 점	기부는 시혜가 아니라는 점과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전적 기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품, 재능 등 다양한 형태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킨다.

<그림 3-5> '100원 경매를 통한 기부 활동' 사례

01

02

03



○ [사례 2] SDGs 이해하고 실천하기

• (1차시) SDGs 카드 맞추기 게임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모습을 보면, 과연 지구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하곤 해요.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1972년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가 나온 이후 전 세계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을 정하여 전 세계가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MDGs와 SDGs는 기간과 범위, 주제, 대상국, 자원, 감시, 모니터링 등에 차이가 있어요. MDGs가 전 세계의 빈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다소 좁은 의미의 대상을 포함하고 지표를 설정한 데 비해 SDGs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인권, 분쟁 등의 논의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슈를 명시하고 있다고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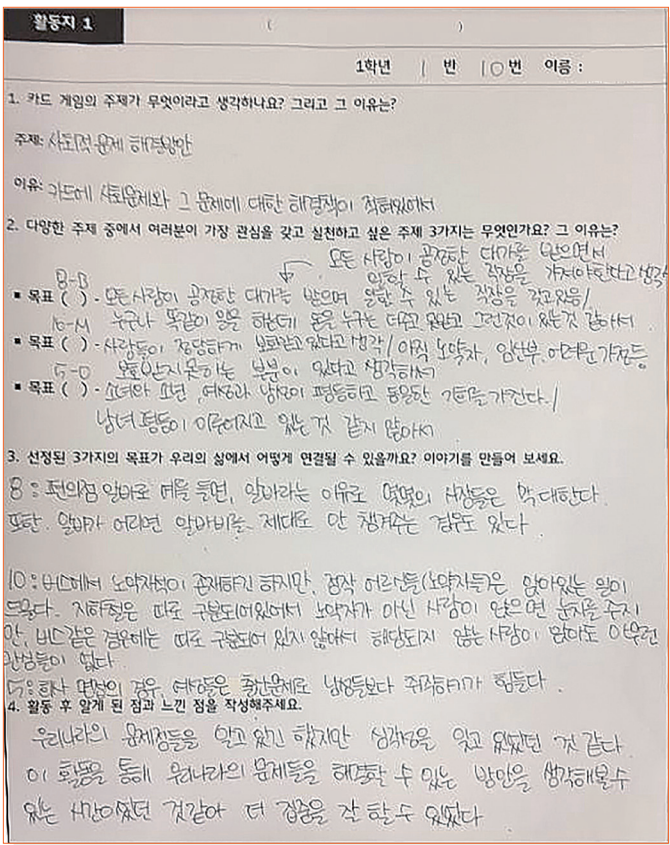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Ⅸ.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단원에서 세계의 자원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배우는데요,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 인구 증가의 속도보다 빠른 자원의 고갈과 남북 문제, 기후 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를 다뤄 보는 단원이지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으로 SDGs가 나와요. 이 단원에서 학생들이 SDGs에 대해 이해하고,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친구들과 토의하며 실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SDGs의 체계적 이해였고, 두 번째는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을 위해서는 SDGs를 카드로 만들어 조별로 나눠주고, 목표와 내용을 연결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어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다 보니 SDGs의 목표는 영어로, 내용은 한글로 표현했고, 조별로 목표와 내용이 맞는 카드를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DGs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SDGs를 명목집단법을

활용하여 학생들 나름대로 분류해 보는 작업을 해보게 했어요. 명목집단법이란 팀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문제나 이슈를 식별하고 순위를 정하는 가중서열화법인데요, 학생들이 17가지의 목표를 나름대로 분류해 보며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길 바랐어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의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분류 기준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국가적 차원의 내용이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재원과 전 세계 국가의 꾸준한 연대를 통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달으며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01
•
02
•
03

<그림 3-6> 'SDGs 이해하고 실천하기' 활동지 사례



• (2차시) SDGs 실천 사다리 만들기

SDGs 카드 게임을 통해 SDGs를 이해한 상태에서 SDGs 사다리 만들기를 진행했어요. SDGs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적 실천 방안을 작성하여 자신의 방문에 걸어둘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SDGs의 실천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그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SDGs 중 하나라도 실천하려는 의지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표 3-7> 'SDGs 이해하고 실천하기' 수업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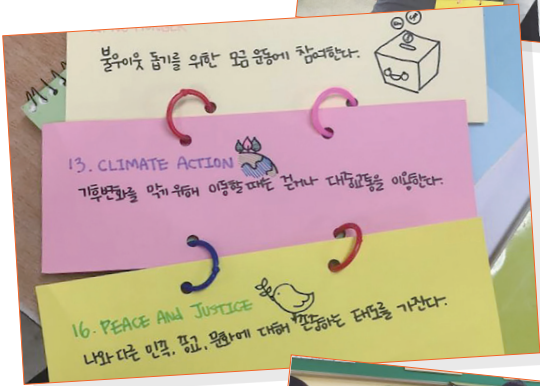
제목	SDGs 이해하고 실천하기 (1차시) SDGs 카드 맞추기 게임 (2차시) SDGs 실천 사다리 만들기
영역	IX.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
내용	① SDGs와 내용으로 배부된 카드 맞추기 게임을 통해 SDGs를 이해한다. ② SDGs 중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SDGs 사다리를 만들어 본다.
구성 및 교수 학습방법	① (1차시) SDGs를 이해하는 쉽고 간단한 활동이다. 미리 만들어 둔 SDGs 카드를 조별로 배부한다. 학생들은 영어로 된 목표 카드와 한글로 된 내용 카드를 맞추며 SDG의 목표를 이해한다. ② (2차시) SDGs를 학생들이 유사한 항목끼리 분류해 보며, SDGs의 체계를 이해하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SDGs 사다리를 만들어 본다.
유의할 점	① 미리 SDGs를 목표와 내용 카드로 만들어 놓는다. ② SDGs를 분류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한다. ③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SDGs를 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7> 'SDGs 카드 맞추기 게임' 및 'SDGs 실천 사다리 만들기' 활동 사례

01

02

03



3.7. 글을 마치며

저에게 '항상 가슴 뛰게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자'라는 인생의 좌우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하곤 해요. 교사로서 수업에 임할 때도 항상 성실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수업이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부분에서 혹은 실천적인 면에서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길 바라는 마음을 중심에 두고 수업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겁다고 생각해요. 왜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세계시민이 아닌 것 같다는 혹은 이런 행동을 반드시 해야만 세계시민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상의 '세계시민교육'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또는 세계시민선도학교, 세계시민연구학교 등의 지정과 그곳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을 보며 세계시민교육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교육 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부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전 인류가 감염병 위기, 환경 위기, 세계적 갈등과 난민 문제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지금,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적 지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실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실천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더 나은 세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교육부-교육청-학교의 중앙집권적 세계시민교육보다는 교사들의 이야기, 교사들의 교육 실천 사례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교육청과 교육부로 연결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분절된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분절된 교과를 연결

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봐요. 인권, 문화다양성, 평화,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주제는 교과 내, 교과 간 주제 통합을 하기에 적절하고, 다양한 교과와의 지식을 통해 문제를 전문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볼 기회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과 연결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연구하여 어느 교과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연구나 수업 성과물을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장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학생들은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받아들인다고 해요. 수업 내용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고, 심지어 과목명까지 잊어버려도 교사만은 기억한다고 해요. 교사의 강의보다는 교사의 이야기, 교사의 몸짓, 행동 등이 학생들에게 녹아들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도 교사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에서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교사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봐요.

바닷물에서 평균적으로 소금이 차지하는 양은 3%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바닷물을 생각하면 짠맛이 기억되는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에서 교사가 바닷물 속의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사진 · 자료 제공 및 출처

1. 질문과 토론으로 이어가는 세계시민교육

'평등', '공평', '자유'의 용어 차이 (원제 :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rms equality, equity, and liberation) / Interaction Institute for Social Change / Artist: Angus Maguire / 28

받침대의 차이로 살펴본 사회 복지 정책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rms equality, equity, and liberation' 이미지 일부) / Interaction Institute for Social Change / Artist: Angus Maguire) / 29

서산 머드맥스 / 한국관광공사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4nDESI6sFFw>) / 35

범 내려온다 / 한국관광공사TV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B_X7n0AaLqA) / 35

한반도와 주변국의 인구 1만명당 군인 수 / 경기도교육청. (2017). 《평화 시대를 여는 통일 시민》 (교과서-중학교). 18. / 42

그 외 1장의 모든 학습활동 자료, 사진 자료 등은 김병연 선생님이 제공했습니다.

2.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우리는 '세계시민'

차이나타운을 탐방하는 서울테마답사반 / 윤신원 / 48

기후 행동에 나선 '내셔널리스트' 환경동아리원들 / 윤신원 / 48

아프가니스탄 활동 시절의 황태성 선생님 / 황태성 / 49

일반적인 한국 밥상 GM Pictures / Shutterstock.com / 58

임수진. (2011). 《커피밭 사람들 (라틴아메리카 커피노동자, 그들 삶의 기록)》. 서울: 그린비. / 58

윤덕노. (2015). 《음식이 상식이다 (아는 만큼 맛있는 뜻밖의 음식 문화사)》. 서울: 더난출판사. / 58

주영하. (2009). 《차폰 잔폰 짬뽕》. 파주: 사계절. / 58

켈시 티머먼. 문희경 역. (2016). 《식탁 위의 세상 (나는 음식에서 삶을 배웠다)》. 서울: 부키. / 58

브라이언 헬웨이. 김종덕 외 2인 역. (2006). 《로컬 푸드 (먹거리-농업-환경, 공존의 미학)》. 고양: 이후. / 58

- 웬델 베리. 이한중 역. (2011). 《은 삶을 먹다 (대지의 청지기 웬델 베리의 먹거리, 농사, 땅에 대한 성찰)》. 서울: 낮은산. / 58
- 허남혁. (2008).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사람·자연·사회를 살리는 먹거리 이야기)》. 서울: 책세상. / 58
- 구정은 외 4인. (2009). 《지구의 밥상(세계화는 전 세계의 식탁들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파주: 글항아리. / 58
- ‘세계 식량의 날 2020’ 관련 이미지 (첫 번째 줄, 좌) / FAO. (2020). *Activity book – Food heroes*. 1. / 60
- ‘세계 식량의 날 2020’ 관련 이미지 (첫 번째 줄, 우) / FAO. (2020). *Activity book – Food heroes*. 14. / 60
- World Food Day 2020(두 번째 줄, 좌) / FAO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KQZFqakBw04>) / 60
- ‘세계 식량의 날 2020’ 관련 이미지 (두 번째 줄, 우) / FAO. (2020). *Grow, nourish, sustain. Together. Our actions are our future*. 1. / 60
- ‘세계 과일과 채소의 해’ 관련 이미지(세 번째 줄의 좌, 우) / FAO 유튜브 채널 / (<https://youtu.be/6CZ9mF8EaLI>) / 60
- 과일 및 채소 관련 SDGs / FAO. (2020). *Fruit and vegetables – your dietary essentials. The International Year of Fruits and Vegetables, 2021, background paper*. 4. / 61
- 자신의 생각을 모둠원들과 나누는 학생들 / 윤신원 / 64
- “기후 변화, 작은 섬나라들엔 생존 문제입니다”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01187.html>) / 66
- ‘에너지 보드게임’ 활동 자료 (상, 하) / 윤신원 / 72
- ‘slavery foot print(노예발자국)’ 결과 예시 / <https://slaveryfootprint.org>, 황태성 / 79

그 외 2장의 모든 학습활동 자료, 사진 자료 등은 윤신원 선생님과 황태성 선생님이 제공했습니다.

3. 지역이해와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세계시민교육

3장의 모든 학습활동 자료, 사진 자료 등은 김다영 선생님이 제공했습니다.

* 여기에 실린 사진 및 각종 자료는 여러 기관 및 개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진 및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김다영

경기 안산 성포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 교과 교사로 재직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의 많은 안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믿음을 학생들과 나누기 위해 유네스코학교(ASPnet) 담당 교사로 활동하는 등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병연

서울 양재고등학교에서 도덕/윤리 교과 교사로 재직 중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하다. 교육이란 학생들로 하여금 배움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 믿는다.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함께 <평화문화를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교육>을 마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세계시민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윤신원

서울 성남고등학교에서 지리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지리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평화·통일교육 자료 개발,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전환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세계시민교육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이란 지구라는 한 공간에서 살아가는 존재 간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고,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삶터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꾸려가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황태성

서울 상명고등학교에서 지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다. 국제개발 NGO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서 1년 간 활동하며 지구촌 곳곳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에도 많은 NGO

활동가 및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하며 국제개발협력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국제사회에 대한 열린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학생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인류가 보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켜 나가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기획 및 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고 확산하고자 정책 연구, 교육자 역량강화 연수, 교육자료 개발, 교사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0년 한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체결한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비매품/무료



9 791197 690747

ISBN 979-11-976907-4-7